

고성군지



제 4편 고성의 인물 · 성씨



제 4편 고성의 인물 · 성씨

제 1장 고성의 인물

고성 땅에 사람이 살고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고성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고성은 일찍 부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변방에 있고 지리적으로 왜구의 노략질 또한 끊어지지 않아 선대의 흔적으로 전해지던 기록 또한 전쟁으로 불타 사라지고 훼손되어 남아있는 유물과 유적이 드물다. 따라서 전래하는 인물 중 고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을 살펴보았다.

제 1절 고려시대 인물

혜문선사(惠文禪師 ~1235) : 고려 때의 승려로 속성은 남씨로 자는 빈빈이다. 보림사에서 20여 년 간 수련하여 대선사가 되고 운문사에서 무위법을 펼쳐 불교의 승려들이 참선하는 전통이 일어나게 했으며 학문과 서예에도 이름을 날렸다.

각진국사(覺眞國師 1270~1355) : 고성에서 태어나 법명은 복구이며 고려시대 송광사 16국사에 들었다. 장성의 백양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불갑사에 각진국사의 신도비가 있다.

이준비(李尊庇) : 옛 이름은 인성(仁成)임. 원종(元宗) 때에 과거에 올라 이부(吏部)와 호부(戶部)의 시랑(侍郎)을 거쳤는데 학문이 널리 알려졌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는데 이준비가 경상·전라·충청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되어 군량을 조달하고 전선(戰船)을 배치하는 등의 전략을 잘 세워 백성에게 폐해가 없게 하였다. 판밀직사(判密直事)와 세자원빈(世子元賓)이 되어 졸하니 세자가 부음(訃音)을 듣고 곡하기를 “이준비는 정직한데 어찌 이렇게 요절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암(李堦 1297~1364) : 고성을 서외리 아명은 군해(君偲)요, 호는 행촌(杏村)이며 이준비의 손자이다. 충선왕(忠宣王) 때에 나이 17세로 등제하였다. 충정왕 때에는 왕을 모시고 원(元)나라에 갔었고, 공민왕(恭愍王) 초년에 물러나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갔는데 다시 불러

내어 문하시중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제수하였으나 그 직에 나가지 않고 독서로 즐겼다. 서법(書法)도 당시에 으뜸이었는데 일찍 손수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써서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며 고성의 3현으로 알려져 갈천서원에 배향하고 있다.

이강(李岡 1333-1368) : 이암선생의 아들. 나이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누차 승진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렀다. 공민왕 당시 변방이 시끄러웠는데 위아래에서 무사히 유지한 것은 이강의 공이 컸다.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는데 나이 36세에 졸하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였다. 추밀원(樞密院)의 예로는 시호를 낼 수 없었으나 특별히 문경(文敬)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우(李瑀) : 존비(尊庇)의 아들. 삼중대광문하시중(三重大匡門下侍中)에 철성부원군이다.

허기(許麒) : 호는 호은(湖隱)이고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정절공(貞節公)이다. 유전(有全)의 손자요, 가락군(駕洛君) 영(榮)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에 홍건적이 송경을 함락시키니, 이목은·홍양파(洪陽坡)·조청구(曹靑邱)·이석탄(李石灘)·이행촌(李杏村) 등 여러 공신들과 왕을 호위하고 적을 물리쳐 원종훈(原從勳)에 올라 보승중랑장(保勝中郎將)에 제수되었으며, 익위장군(翊威將軍)의 칭호가 내려졌다. 그 뒤에 이석탄이 신돈을 탄핵한 일로 본읍의 죽도(현 고성읍 수남리)로 귀양 오게 되어 정자를 지어 열락정(悅樂亭)이라 하였다. 그 뒤에는 고을의 북쪽 장산리(章山里)에 터를 잡고 장산숲(지방문화재자료 제115호)을 조성하며 살았는데 시(詩)에 이르기를 “초야로 물러나니 왕축 같은 충신이 생각나고, 산에 오르니 백이(伯夷)를 대하기 부끄럽다.” 라 하였다. 조선조에서 누차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는데 이윽고 졸하니 정절(貞節)이라 시호를 내렸다. 길야은(吉冶隱)과 함께 성곡사(星谷祠)에 배향되고 뒤에는 도연서원(道淵書院)에 배향되었다.

이교(李嶠 1300-1361) : 호는 도촌(桃村)이니 행촌의 동생이다. 벼슬은 한림학사(翰林學士)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이르렀다. 효우(孝友)가 두루 지극하여 부모의 상(喪)을 당해서는 죽과 채소만 먹었으며 몸가짐이 엄정하여 집안사람들이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였다. 문장과 학행이 백씨인 행촌공과 함께 이름을 떨쳤으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이림(李林 ?-1391) : 교(嶠)의 아들. 벼슬은 벽상삼한삼중대광문하판전리(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判典理)이고 보조좌명공신(補祚佐命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봉호(封號)는 철성부원군(우

왕의 국구)이다. 고려 말 공양왕의 즉위로 충주로 유배되었다가 병사함.

제 2절 조선시대 인물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신분이나 실력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이 따랐다. 태어나서 5살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30~35살이 되어야 급제할 수 있었으며 3년 만에 치러지는 과거시험(식년과)에 33명만을 뽑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출신의 인물들이 과거 합격자 명단에 많이 이름을 올리고 벼슬아치가 많이 배출된 까닭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전래하는 인물마저도 그 유적이 전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훼손되어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특이한 일은 자신을 갈고닦아 입신한 사람은 그 집안을 잘 다스려 자손들을 훌륭한 인물로 많이 배출시켰으며 효자 효부 열녀들이 대를 이어 계승했음을 우리 고장의 선조들에게서 볼 수 있다.

1) 인물 일반

이원(李原 1368-1430) : 호는 용헌(容軒)이니 강(岡)의 아들이다. 정몽주의 문하생으로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고 벼슬은 좌정승(左政丞)에 이르렀으며 철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아들 대(臺)와 비(埤)는 동중추이고 지(墀)는 과거에 급제하여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지냈다.

남수문(南秀文) : 고성 남씨로 1436년(세종18)에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글로써 세상에 알려졌으며 고려사절요를 썼다. 벼슬은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이르렀다. 문집 「경제유고」가 있다.

이척(李則) : 이원(李原)의 손자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학문으로 이름이 있었고 성품은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륙(李陸) : 이원(李原)의 손자이다. 갑신년의 임금이 직접 치루는 친영시에 장원하고 또 중시(重試)와 발영(拔英) 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으며 학문이 널리 알

려졌다. 『승람(勝覽)』에 실려 있다.

어변갑(魚變甲 1380-1434) 호는 면곡(綿谷)이니 월정(月亭) 연(淵)의 아들이다. 1406년 식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은 직제학에 이르렀고 곤의서원(昆義書院)에 모셔졌다.

어효침(魚孝瞻 1405-1475) : 면곡(綿谷)의 아들로 호는 구천(龜川). 벼슬은 대사성 판중추 부사에 이르렀고 불교와 풍수설을 배격하였다. 시호는 문효(文孝)인데 곤의서원(昆義書院)에 모셔졌다.

이미(李美) : 본관은 함안으로 참의 원로(元老)의 아들이며 호는 창강(滄江)이다. 문종조(文宗朝)에 생원(生員)이 되고 단종조(端宗朝)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부모를 위해 향리의 고을을 청했는데 단종께서 손위(遜位)하니 벼슬을 버리고 나가지 않았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서 진해현감을 청해 절검(節儉)과 애민(愛民)에 힘쓰니 고을 현감을 평가하는 고과(考課)에 제일 으뜸이었다. 내직(內職)으로 들어가 사성(司成)이 되고 여타의 관사(官司)를 두루 거쳐 특별히 대사성(大司成)에 올랐는데 인재를 발탁하고 기르는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죽은 뒤 누차 벼슬이 증직되어 병조판서에 이르고 사간(思簡)이라 시호가 내려졌다. 마암면 위계서원(葦溪書院)에 배향하고 있다.

허원필(許元弼 1492-1529) : 사정(司正) 여(旅)의 아들로 호는 송와공(松窩公). 병신년에 무과에 올라 허종(許琮)을 따라 야인(野人)을 정벌하여 공이 있어 벼슬 용천군수에 이르렀다. 성품은 효우(孝友)하고 재주는 문무를 겸하였다. 친상(親喪)에 여묘살이를 하고 애휼(哀毀)하여 예절을 다하였다. 고성 삼락리 허원필의 묘역(도 기념물 271호)이 있다.

이인형(李仁亨 1436-1497) : 호는 매헌(梅軒) 창강(滄江) 미(美)의 아들. 1468년 식년문과에 장원하여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과는 도의지교(道義之交)로 연산군 무오사화에 부관참시를 당했다.

이의형(李義亨 1442-1495) : 호는 행헌(杏軒)이니 인형의 아우이다. 점필재와 도의교(道義交)를 맺었다. 세조조에 전강(殿講)에 입시하니 상께서 그 얼굴과 풍채(狀貌)를 기특하게 여겨 선전관에 제수하고 중외의 기무(機務)에 대해 때때로 자문하였다. 147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과 집의를 지내고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황제가 그 문장에 감탄하여

상으로 서책을 내리기도 했다. 시묘살이 상복을 벗은 뒤에 여러 관직을 지내고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갔다가 관소(官所)에서 죽었다.

이지형(李知亨 ?-1504) 호는 국현(菊軒). 1477년 진사에서 중형 의형(義亨)과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대사간이 되었다. 무오사화를 피해서 함안에서 살았으나 갑자년에 만형 인형(仁亨)의 화가 부관참시에까지 미치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노갑생(盧甲生) : 벼슬이 도염서승(都染署丞)에 이르렀다. 함양군수를 역임하였다. 남명(南冥)이 그를 기리기를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너그럽고 욕심이 없어 은거하다 생을 마쳤다.” 하였다.

노필(盧瑋 1464-1532) : 초명은 조동 호는 묵재(墨齋)이니 선경(善卿)의 아들이다. 모재 김안국(金安國)이 훌륭한 인재로 천거하여 중종조에 공조정랑을 지냈다. 기묘사화 때 탄핵을 받아 벼슬이 깎이었는데 일이 진정되자 지평(持平)으로 제수되었다. 성품이 효우(孝友)하였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 선생과 함께 김종직 선생의 문하에 공부하였다. 한훤당사우록(寒暄堂士友錄)에 이르기를 ‘노필은 학식이 맑고 순수하며 아울러 재주가 뛰어났다.’ 고 하였다. 이암 어득강과 함께 고성(高城)의 3현으로 갈천서원에 배향하였다.

어득강(魚得江 1470-1550) : 함종인(咸從人)으로 자는 자유(子游) 호는 관포(灌圃)이다. 1495년(연산군) 과거에 급제하였다. 문장과 학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성질이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벼슬을 바라지 않았는데 시사(時事)가 탐탁하지 않자 해학(諧謔)으로 자신을 감추고 살았다. 만년에는 본 고을의 혼돈산(混沌山) 아래에 터를 잡고 혼돈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머물기도 하고 포옹장인(抱擁丈人)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중종조에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시집이 있어 퇴계 선생이 시집의 서문을 지었는데, “선생(先生)은 기발하고 뛰어난 풍자가 있어 난세에도 온전히 보전했으며 태평한 시절에도 벼슬을 탐하지 않았으며 홍문관에 올려줘도 비굴하려 하지 않았고, 작은 고을의 박봉에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시에 더욱 능하여 두보의 시에도 비길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갈천서원에 배향되었다.

제철손(諸哲孫) : 칠월인으로 호는 동고(東阜)이고 귀산군(龜山君) 문유의 후손이다. 성종조에 벼슬이 성균사예(成均司藝)에 이르렀으나 기묘사화를 입고 고성으로 낙향하여 살았으며

성품이 강직하여 권력에 이부하지 않았다.

이령(李翎) : 호는 성재(惺齋)이니 인형(仁亨)의 아들이요, 조광조 선생의 문인이다. 재주가 뛰어나 현량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홍문관의 저작(著作)과 수찬(修撰)에 이르렀는데 기묘 사화에 화를 당하였다.

허천수(許千壽) : 호는 천산재(天山齋)이니 원필(元弼)의 손자이다. 타고난 성품이 출중하고 퇴계 선생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연구하였으며 글을 지음에는 꾸밈이 없었다. 효우에 독실하여 공릉참봉(恭陵參奉)을 지냈다. 형조참의에 증직되고 도연서원(道淵書院)에 배향되었다.

안중손(安仲孫) : 광주인(廣州人) 자는 백시(伯時)이다. 갑자년에 생원에 합격하고 1513년 식년시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헌부장령과 세자의 스승에 이르렀다. 학문과 덕망이 김일손(金駟孫), 박덕손(朴德孫)과 함께 영남의 삼손(三孫)이라 일컬었다.

최담(崔潭) : 전주인으로 첨사 윤신(潤身)의 아들이요, 이식(以湜)의 손자다. 덕망이 높고 행실이 반듯하여 누차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고 손자인 임진왜란 공신 최강 장군의 현달로 한성부 우윤에 증직되었다. 함안에서 구만리로 이거하였다.

남필문(南弼文) : 호는 조암(操庵).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어 일찍부터 퇴계 문하에서 자신의 몸을 닦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진사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박덕손(朴德孫) : 밀성인으로 호는 완천(浣川)이니 벼슬은 필선(弼善)을 지냈다. 문학인 김일손(金駟孫) 안중손(安仲孫)과 함께 영남 3현으로 이름을 날렸다. 기묘명현(己卯名賢)에 들었으며 여항산에 은거하여 산수를 벗하며 살았다.

최균(崔均 1536-1616) : 호는 소호(蘇湖)이니 증 형조판서 윤철(云哲)의 아들이다. 학문에 전심하였는데 주역에 밝았다.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여 형제 3인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고 임진란을 당하여 아우 강과 함께 의병대장으로 왜적을 물리쳐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누차 승진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고 사망한 뒤에는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시호를 의민(義敏)이라 하였으며 아우와 함께 도산서원(陶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최강(崔綱 1559 - 1614) : 호는 소계(蘇溪)이며 의민공의 아우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용모가 반듯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고 사람 대함에는 부드러웠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1585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경학(經學)에 밝고 문장에도 능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백형 소호(蘇湖)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누차 공을 세웠다. 가리포침사(加里浦僉使)로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 왜적선을 포획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책록되고 벼슬은 좌수사 부총관 포도대장에 이르렀으며 병조판서에 증직되고 의숙(義肅)이란 시호가 내렸다. 장군의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광해군이 예관을 보내서 제를 올리게 하고 또 지관을 보내서 장례를 도우라 명하기도 하였다. 형인 소호와 함께 도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이현(李顯) : 호는 와룡(臥龍)이며 주부 조희(兆喜)의 아들이다. 일찍이 유미암 희춘(希春)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임진란 뒤에는 폐허가 된 향교와 서원을 중수하여 선비 고장의 유림들을 배출한 공이 많이 있었다. 수직으로 통정이 되었다.

제락(諸洛) : 호는 죽림(竹林)이니 동고(東阜) 철손의 손자이다. 경학(經學)으로 천거되어 순릉참봉을 지냈다. 임진란에 고성 당항포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제말(諸沫 1567 - 1593) : 호는 가계(柯溪)이며 본관은 칠원이다. 재주와 용맹이 뛰어나 무과에 올랐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켜 진주의 싸움과 정암의 전투에서 조카 홍록(弘祿)과 함께 큰 공을 세웠다. 김성일이 조정에 공격을 알려 성주목사(星州牧使)를 맡게하여 고령과 현풍의 적을 막게 하였으며 안의와 무주에서 전공이 다른 부대보다 많았다. 광재우, 권응수, 정기룡 장군보다 더 많은 전공을 세웠다. 사후에 병조판서를 증직하고 충장(忠壯)이란 시호가 내렸으며 성주에 조카 제홍록과 쌍충비를 세웠으며 성주의 충절사(忠節祠)에 배향하게 하였다. 순조조에 충의(忠毅)라 시호를 다시 내리고 운곡사원(雲谷書院)에 다시 배향하게 하였다.

박연홍(朴連弘) : 구만의 같은 고을 출신인 최강장군을 따라 정진의 광재우 장군의 휘하로 달려가서 전공을 세워 임란공신에 이름을 올렸다. 벼슬은 당상관인 판결사(判決事)에 이르렀다.

정확(鄭廓) : 진양인으로 호는 남포(藍圃)이다. 선조조에 훈련판관을 지냈다. 임진란에 두 아우인 규(奎)와 섬(澗)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진주와 삼가(三嘉) 등지에서 힘써 싸우다가 전장에서 전사하였다. 원종2등훈(原從二等勳)에 책록되었으며 정려가 세워졌다.

최흥호(崔興虎) : 의민공 균의 아들이며 아우 진호(振虎)와 함께 아버지의 막하에서 함안, 웅천, 진주, 사천의 전투에서 왜적을 토벌하여 누차 승리를 거두었다.

최진호(崔振虎) : 의민공의 아들. 임진란을 당하여 공의 형제는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서 군병을 조발하고 전략에 참여한 공이 크고 많았다. 일찍이 이순신의 웅천진으로 달려가서 군량을 조달하고 진지 방어를 맡았으며, 조종도, 곽재우 장군과 합세하여 정진(鼎津) 전투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쳤다.

최명호(崔鳴虎) : 의숙공 강(岡)의 아들. 임진왜란에 참여하였으며 벼슬은 종3품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를 지냈다.

제홍록(諸弘祿 1558 - 1597) : 호는 고봉(高峯). 충의공(忠毅公) 말(沫)의 조카임. 1581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란초 전공이 알려지자 이순신의 진중으로 들어가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에 진주성에서 순절하여 원종훈에 책록되었다. 정조조에 병조참판에 증직하고 쌍충비(雙忠婢)를 진주에 세우라고 명하였다. 뒤에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배향되었다.

최훈(崔塤) : 최담(潭)의 후손임. 판관으로서 활약하다 임진란을 당하여 전사하였다.

최정호(崔廷虎) : 호는 모재(慕齋)로 판관 훈(塤)의 아들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저서로 「인물성동이설(人物性同異說)」, 「모쟁유집」이 있다.

노극복(盧克復) : 호는 월화당(月華堂). 성품은 순실하고 행실은 결백하며 마음 씀이 너그럽고 사람을 대함에는 믿음이 있으니 향리에서 경복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고성에서 의병을 모아 궤기하였으며 조정에서 덕망이 높은 선비를 추천해 오수찰방(禦樹察訪)에 제수하였다.

도신장(都愼長) : 성산인(星山人)으로 호는 서산(棲山)이며 가선대부 동태(東台)의 아들이다. 유림에서 독실한 선비를 추천하여 참봉이 되었으며 수직으로 가선에 올랐다.

최수강(崔秀岡) : 호는 해정(海亭)이며 나라가 어지러워도 절개가 있어 이름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가 되었다가 뒤에 수직으로 가선에 올랐다.

제명황(諸命璜) : 호는 낙요당(樂要堂)이며 참봉 낙(洛)의 증손이다. 저서로는 「진수설(進修說)」 「자구변(藉口辨)」 「주색계(酒色誡)」 등이 있다. 사미헌 장복추(張福樞)가 유고(遺稿)의 서문을 썼다.

정주한(鄭周翰) : 진양인으로 호는 창강(滄江)이며 호군 이호(以濩)의 아들이다. 인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현찰방(省峴察訪)을 지냈다. 학문이 순수하고 밝았으며 성품이 강직하여 절개가 곧았다. 정축년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여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냈다.

이팽년(李彭年) : 태원(泰元)의 아들. 성질이 활달하고 큰 뜻이 있었다. 숙종조에 무과에 올라 조정에서 천거하여 선전관에 제수되었다. 얼마 후에는 관북병마절도사(關北兵馬節度使)가 되어 회령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여진족이 북변의 근심거리였는데 때마침 적군이 쳐들어오니 부사(府使)는 도망쳐버렸다. 공이 흠어진 병력을 규합하여 적을 쳐서 대과하고 적의 수급을 참획(斬獲)한 공이 매우 많았다. 그 공로로 조정에서 가선대부의 품계로 올려 주었다.

구상덕(具尙德 1706 - 1761) : 고성 거류면 출신. 호는 월봉(月峯)이니 후청(厚淸)의 아들이다. 문학을 좋아하여 유집이 있고 또 37년간의 일기가 있어 『승충명록(勝聰明錄)』이라 하였는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443호로 지정되었다. 승충명록의 가치는 18세기의 경제 사회 민속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광섭(崔光燮) : 산와(山窩)의 손자. 일찍 집안의 학문을 계승하여 문장이 뛰어났다. 학문과 삶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여 향리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벼슬은 첨중추(僉中樞)로서 가선대부에 올랐다.

백봉래(白鳳來 1717 - 1799) : 수원인(水原人). 호는 구룡재(九龍齋)이니 고려 때의 진사 휘(暉)의 후예이다. 11세에 4서 3경을 다 읽었다. 집은 가난하고 부모는 늙어 구룡재를 짓고 책을 읽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최광언(崔光彦) : 유할(由碯)의 현손. 재주는 문무를 겸하였고 뜻은 나라를 다스리고 학문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수직으로 첨중추를 지냈다.

최상악(崔祥岳) : 현감을 지냈다. 성격이 편안하고 욕심이 없어 벼슬에 나아갈 마음이 없었으며 권세 있는 집안에 비굴하지 않았다.

최섭(崔涉) : 호는 만회(晩悔). 현감 상악(祥岳)의 아들로 벼슬은 부사(府使)임. 어려서부터 재예가 출중하여 사람들이 문무를 모두 갖추었다고 칭하였다. 또 글씨도 잘 써서 법첩(法帖)이 많다. 타고난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비록 부사로 고을을 맡았으나 청빈하고 효행과 덕행으로 다스려 고을을 떠난 뒤에 백성들이 추모하였다.

최상순(崔祥純) : 호는 경재(綱齋)인데 유정재선생의 문인이다. 경례(經禮)의 학문으로 선비의 바른 도리를 몸소 실천하였다. 저술에는 『태극변(太極辨)』 『상례요해(喪禮要解)』 『중용독서록(中庸讀書錄)』 『기삼백해』 등이 있다.

최상우(崔祥羽) : 호는 치암(恥庵)이니 규환(奎煥)의 아들이다. 소시에 뜻을 세워 종로(宗魯)선생의 가르침을 받고는 과거공부를 폐하고 학문에만 힘썼다. 낙민서(洛閩書)를 읽고 연구하여 몸소 실천하였다. 유정재(柳定齋)선생과 도의로 교제를 맺었는데 공이 지은 책들을 보고 탄복하여 말하기를 “나의 고비(皐比: 스승의 자리)를 거두어 넘겨줘야 하겠다.” 고 극찬을 하였다. 「편의육책」 등 문집 10권이 있다.

최필암(崔必嶽) : 소호(蘇湖)의 후예로서 성품이 깔끔하고 풍채가 현출했다. 문장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한 시대의 금석문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최광진(崔匡鎭) : 호는 매은(梅隱). 호자 필홍(必鴻)의 아들로 선비로서 덕행이 있었다. 면우(俛宇) 곽중석이 묘갈명에서 “실사구시로 마음을 간직하고, 근실로써 행하였다. 겉옷은 허름하나, 가슴에 품은 뜻은 주옥(珠玉)이었다. 이를 겸양이라 하니, 학문을 하는 표본이고 근본이다.” 라고 하였다. 문집이 있다.

최준(崔濬) : 호는 국천(菊泉)이니 규환(奎煥)의 손자이다. 명경과(明經科)로 과거에 급제하여 대사성 이휘준(李彙濬)의 천거로 직강(直講)이 되었으며 사헌부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최항(崔沆) : 호(濶)의 아우임. 기품이 견고하고 뜻하는 바가 크고 넓었다. 이름난 문인 명사들과 사귀어 문호(門戶)가 넓었다. 처음 벼슬을 제수 받았을 때는 장작소감(將作少監)을

지냈다.

최동한(崔東漢) : 의민공(義敏公)의 후손이다. 임오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벼슬은 동둔녕(同敦寧)에 이르렀다.

최동태(崔東泰) : 호는 일계(日溪)이며 하수 룡(瀧)의 아들이다. 저서로는 『해석동몽수지(解釋童蒙須知)』 1권과 『일계집』 4권이 있다. 주위의 기대를 모았으나 나이 34세에 졸하였다.

최한승(崔翰升) 호는 경산(景山)이며 정언 규승(圭升)의 아우임. 재예가 민첩하고 글을 지음에 비범하여 명서이 자자하였다. 남영(南營)에서 처음 벼슬을 시작하여 부사직(副司直)까지 올랐다. 문집이 있다.

최정기(崔正基) : 호는 가천(可川)이며 학음(鶴陰) 오순(五淳)의 아들이다. 서산 김홍락선생의 문인으로 만년에는 큰 학자가 되었다. 문집에는 「중용설(中庸說)」 「심설(心說)」 「고증성학총요(放證聖學摠要)」 등이 있다.

제경근(諸慶近) : 호는 회산(晦山)이며 통정 동범(東範)의 아들이다. 사미 장복추선생의 문인이다.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근대 고성 의 큰 유학자로 존경을 받았으며 후학을 많이 길렀다. 저서로는 『의례증해(疑禮證解)』, 『상제예촬(喪祭禮撮)』, 『속통단(續通斷)』 등이 있고, 문집은 6권이 간행되었다.

허재찬(許在瓚 1847 - 1918) : 호는 죽사(竹史)이며 진사 순(岫)의 아들이다. 용모가 방정하고 천성이 너그러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려는 아량이 있었으며 성실한 태도가 충심에서 우러나와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다. 1878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승훈랑을 지냈으며 비서승(秘書丞)에 발탁되고 종2품까지 올랐다. 문집으로 「죽사선생집」이 있다.

이석관(李碩權 1846 - 1921) : 호는 석우(石愚)이며 호군 한필(漢弼)의 아들이다. 일찍 문학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시를 잘 지었다. 1890년 무과에 급제하여 시어(侍御)가 되고 통정대부로 홍해군수를 지냈는데 일제로부터 경찰권을 빼앗겨 백성을 다스릴 방도가 없어지자 향리로 내려와 은둔하였다. 유고로 「석우집」이 있다.

2) 유림(儒林)

박유립(朴有立) : 증병조판서 연홍(連弘)의 아들이다. 임진란 뒤에 월계당(月溪堂)을 신천에 짓고 학문을 닦으면서 후손들을 가르쳤다. 사미 장복추선생이 칭송하기를 “초야에서 홀로 학문을 일으켰는데, 덕이 높고 행의는 다른 선비들의 모범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최광려(崔光礪) : 호는 만수재(晩修齋)이며 상재 제회(際會)의 손자이다. 유정재선생에게 글을 배웠으며 문필과 행의로 이름이 드러났다.

하경수(河景洙) : 호는 둔재(遯齋)이며 문효공(文孝公) 연(演)의 8세손이요 묵와(默窩) 득룡(得龍)의 아들이다. 벼슬은 훈도를 지냈으며 소학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몸가짐의 지침으로 삼았다. 와룡 이현선생과 교우하였고 노상직(盧相稷)이 행장을 지었다. 유집이 남아있다.

제여필(諸汝弼) : 호는 모성재(慕聖齋)이며 선략 홍희(弘禧)의 증손이다. 타고날때부터 빼어나게 영민하여 8살에 유교의 도리를 가르치니 이해하고 실천하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효우(孝友)와 충신(忠信)의 행실이 있었다.

강기국(姜紀國) : 호는 목의재(睦義齋)이며 통덕랑 봉현(奉賢)의 아들이다. 창주 하징(河愷)선생에게 학문을 배워 도리를 깊이 연구하고 독실히 실천하였으며 문장에 성취가 있었다. 가훈을 지어 후손에게 남겼으며 망학산(望鶴山)에 집을 짓고 공부하는 처소로 삼았다.

최상욱(崔祥郁) : 자는 자운(子雲)이며 호군 유반(由磐)의 5세손이다. 향리에 숨어 지내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 그의 며느리 인천이씨가 예물로 가져온 김하서(金河西)의 묵죽유감시(墨竹有感詩)을 바라보며 평생의 도를 향한 지표로 삼았다.

한견(韓堅) : 호는 청계(聽溪)이며 조은 몽삼(夢參)의 5세손이다. 생원을 하고 수직으로 통정이 되었으며 가선(嘉善)에 증자(贈資)되었다. 예(禮)에 조예가 깊어 크게 성취를 하였다.

최응좌(崔應佐) : 호는 사농와(土農窩)이며 응우(應禹)의 아우이다. 벼슬을 하지 않고 향리에서 심신을 수양하면서 후학을 가르쳤다. 명필로 이름이 있었다.

정도현(鄭道賢) : 호는 치현(恥軒)이며 처사 광오(光五)의 아들이다. 천성이 영민하고 평시에도 예절이 바르고 법도가 있었다. 경사(經史)에 통달하였으나 오직 중용으로 평생의 목표로 삼으니 향리에서 모두 우러러 존경하였다.

서옥(徐錫) : 호는 추담(秋潭)이며 주부 필창(必昌)의 손자이다. 필봉(筆峯)아래에 집을 짓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로 학문에 전념하니 향리와 서당에서 따르는 사우(士友)들이 아주 많았다.

최상가(崔祥可) : 극옹 성대(成大)의 손자이다. 뜻하는 바가 맑고 고결하여 학문이 크게 성취하였으나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독실하니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며 따랐다.

최필원(崔必源) : 호는 경와(敬窩)이며 처사 광혁(光赫)의 손자이다. 시와 문학이 뛰어났으며 예의와 제도에 밝고 몸소 실천하였다. 문집 2권이 있다.

성치희(成致禧) : 자는 여유(汝裕)이며 족용헌(足容軒)이란 당호를 걸고 지냈다. 일찍 시례(詩禮)로 학문을 닦아 행동에는 법도가 있고 일을 처리함에는 규율에 따랐다. 조용하게 지내면서 자신을 엄격히 지키고 영리에 구애됨이 없었다.

최필범(崔必範) : 호는 작포(芍圃)이며 후덕한 인심으로 이웃과 고을에 명망이 있었다. 수신에 근실하고 행동이 민첩하였으며 부모를 섬김에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봉양하는 효도를 하였다.

최상덕(崔祥德) : 호는 용강이며 어려서는 경재(綱齋)선생에게 수학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집안에서 부모를 모셨는데 어머니께서 장수를 누리어 그 시중을 자질들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다하였다. 바른 법도로 집안을 다스리고 가르쳐 집안 식구들과 이웃에 모범이 되는 것이 많았다. 수직으로 통정(通政)이 되었다.

최필하(崔必河) : 자암 상익(祥翼)의 아들이다. 총명이 출중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학문이 성취되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용모가 단정하여 이웃사람들이 존경하였다.

최필봉(崔必鵬) : 호는 동오(東塢)이다. 천성이 맑고 깨끗하였으며 자애롭고 믿음이 있어 은

거하면서 학문에 대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였다.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유유자적하고 살았다.

최필호(崔必灝) : 호는 일암(逸庵)이며 필봉(必鵬)의 아우이다. 성품이 근엄하고 다른 사람과의 처신이 방정하여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였다. 명필이라 비석의 글씨는 많이 남겼다.

최수(崔洙) : 호는 남와(南窩)이며 호군 상운(祥雲)의 아들이다. 큰 키에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기상이 걸출하였다. 예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의례에 조예가 깊었다.

최룡(崔瀾) : 호는 하수(霞叟)이며 진사 상갑(祥甲)의 아들이다. 재주가 민첩하여 학문이 남보다 일찍 깨달았다. 집에 만오(晩悟)라고 현판을 걸고 자신에 대한 일체의 영화나 이해관계에 대해 개의하지 않았으며 오직 독서로 살았다.

허동로(許東櫓) : 호는 행포(杏圃)이며 천산재(天山齋)의 8세손이다. 성질이 관후하고 언론이 공정하였으며 효성스럽고 종족 간에는 화목하고 이웃에 다정하고 봉우 간에는 신의가 있었다. 영민한 재주임에도 산수에서 소요하며 초야에서 생을 마치니 사람들이 애석해하였다.

최오순(崔五淳) : 호는 학음(鶴陰)이며 통덕랑 중진(仲鎭)의 아들이다. 타고난 성품이 반듯하고 의지가 굳어 학문이 일찍 성취하였다. 선비로서 몸가짐이 반듯하여 아무리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도포와 띠를 벗지 않았다. 학문이 남달리 뛰어났으나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 큰 뜻을 펴지 못했다.

허경오(許慶伍) : 호는 삼락당(三樂堂)이다. 천성이 인자하고 후덕하였다. 아버이를 섬김에는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세 아우와 우애가 두터워 사람들이 효우의 집안이라고 일컬었다.

정효권(鄭孝權) : 호는 매호(梅湖)며 주한(周翰)의 후손이다. 성품이 한가하고 고요하였으며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두터웠다. 시문은 담백하였으나 필력(筆力)은 굳세었다. 은거하여 학문을 연마하였는데 깊이가 있고 완벽한 이해가 있었다.

박동유(朴東裕) : 호는 삼호당(三乎堂)이며 이조판서 문령(文齡)의 현손이며 정언 천구(天耆)의 아들이다. 천성이 온화하고 준수하여 독실한 의지를 세우고 힘써 노력하였다. 노후에는 서실을 짓고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향리에서 보냈다.

이병일(李秉一) : 타고난 성품이 크고 넓은데다 학문과 덕망을 겸비하여 명망이 높으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으로 섬겼다. 유집이 있다.

최영진(崔泳鎭) : 호는 도남(道南)이다. 어릴 때부터 재주가 있었으나 산골짜기에 자취를 감추고 후진들을 가르쳤다. 집안의 자녀들이 작은 허물이라도 엄격히 처리하였으나 남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너그러웠다. 유집이 있다.

제동진(諸東鎭) : 호는 만은(晩隱)이며 행촌 한석(漢錫)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덕망있는 그릇이었고 학문을 이루는데 남보다 일찍 성취하였다. 처신은 엄정하여 의복을 반듯하게 하였다. 오방산(五芳山) 아래에 집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최필학(崔必鶴) : 호는 갈과(葛坡)이며 호군 상일(祥駟)의 아들이다. 경재공(綱齋公)에게 수학하여 독실히 배우고 힘써 고을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 유집이 있다.

허순(許峯) : 호는 금현(琴軒)이며 호군 경문(慶文)의 아들이다. 문헌공 성재 허전(許傳)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학문이 깊고 돈독히 실천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허일(許駟) : 호는 성호(醒壺)며 병인년(1866년)에 참봉이 되어 성재 허전(許傳)과 예경을 강론하였는데 성재선생께서 매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몸가짐은 공손히 하고 집안은 근검으로 다스렸다. 유고가 있다.

최필량(崔必亮) : 호는 해은(海隱)이며 처사 상칠(祥七)의 아들이다. 성정이 침착하고 사려가 깊었으며 문장이 격식에 맞고 아름다워 다른 사람의 사표가 되었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널리 읽혀졌다.

박인선(朴麟善) : 호는 은암(隱巖)이며 무숙공(武肅公) 광서 진영(震英)의 후손이다. 품성이 영특하고 처신에 법도가 있었으며 학문에 깊이 탐구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특히 수리학에 능하였으며 사람들이 모두 군자라 칭하였다.

최상겸(崔祥謙) : 호는 군산(君山)이며 소호(蘇湖)의 후손이다. 고시에 능하여 성균관에 유학할 때 유생들이 모두 뛰어난 문장가로 불렸으며 동학생일지라도 더러는 스승으로 대하기도 하였다. 여러 번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며 유고가 있다.

김학기(金學驥) : 호는 용원(龍源)이며 역학(易學)에 잠심하여 『이략(理略)』 상하편(上下篇)을 지었다. 자신의 몸을 처신함에 신중하였으며 수직으로 통정(通政)에 올랐다.

하상호(下象灝) : 호는 도남(道南)이며 운초 한동(漢東)의 아들이다. 자신을 위한 공부에 힘써 도봉산 아래에 정자를 짓고 주일잡(主一箴)을 벽에 써 붙이고 자질을 함양하고 학도들을 훈계하였다. 한 가지 일이라도 반드시 의리에 합당한지를 살폈다.

김준엽(金準燁) : 호는 소봉(小鳳)이며 증교관 창석(昌錫)의 아들이다. 옛 것을 믿고 의리를 좋아하였으며 권력을 넘보지 않고 스스로 편안하게 지냈어도 80 평생에 한 가지도 하자(瑕疵)가 없었다. 향리 사림들이 계(契)를 만들어 문안드릴 거리로 만들었다. 유고가 있다.

진기석(陳基錫) : 호는 지강(芝岡)이며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과 견문이 해박하였다. 사문 유취 한 권을 편집하고 엮어서 「공문궤축(攻文軌躅)」이 전해지고 있다.

허정(許鎭) : 호는 양고현(兩顧軒)이며 송정 간(侃)의 현손이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면서도 경서와 사서를 돌러가면서 읽으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아껴 공부에 열중하였다. 허성재(許性齋)에게 수학하였는데 항상 말하기를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기(末技)이다.” 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정기환(鄭基煥) : 호는 후람(後藍)이며 졸재(拙齋) 태식(泰植)의 아들이다. 성질이 어질고 재주가 총명하여 글을 배운 지 몇 년 만에 경사를 섭렵하였다. 만년에는 허성재(許性齋)를 찾아뵈고 경서와 예서를 열심히 강독하였다. 자신의 영리를 구하는데 힘쓰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다.

최상우(崔祥右) : 호는 연산(蓮山)이며 규진(奎鎭)의 아들이다. 천성이 순수하고 아름다웠

다. 계당 유주목(柳疇睦)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벼슬은 감역(監役)을 지냈고 유집이 남아 있다.

최태규(崔泰逵) : 호는 화사(花史)이며 통정(通政) 거산(巨山)의 후예이다. 성품은 홍의(弘毅)하고 행실은 효유(孝友)하였다.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였고, 사부(詞賦)를 잘하여 대소과(大小科)가 여러 번 입격하였으며 더욱 진수(進修)하였다. 유고 약간 권이 있다.

박문준(朴文駿) : 호는 취간(翠澗)이며 사과 상응(尙應)의 아들이다. 재예가 출중하여 일찍이 시와 문장으로 명성이 있었다. 늦게야 벼슬길에 올라 장작소감(將作少監)을 지내다가 수직으로 도정(都正)에 올랐으며 유집이 있다.

최상로(崔祥魯) : 경주인(慶州人)으로 규찬(奎燦)의 아들이다. 학문을 탐구함에 조금이라도 해이함이 없었다. 도잠(圖箴)을 써서 벽에 붙이고 스스로 해이해짐을 경계하였다. 유집으로 『원묵집(源默集)』이 있다.

김용호(金容鎬) : 호는 연호(蓮湖)며 탁영(濯纓)의 후예이다. 덕성이 있고 글을 잘하였다. 공은 학문은 넓고 뜻은 맑고 깨끗했으며 행실은 고상하여 세상에 모범이 되었다. 문집이 있다.

최문순(崔文淳) : 호는 옥하(玉下)이며 서비 우순(宇淳)의 아우이다. 성품은 기개가 웅장하고 도량이 넓어 혼란한 세상과 부합하지 않았다. 오직 시문으로 산수를 벗하며 향리에서 독서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다.

이형규(李瑩奎) : 호는 구산(九山)이며 허성재(許性齋)선생의 문인이다. 타고난 성품이 크고 넓어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문집이 있다.

허진(許璿) : 호는 항재(恒齋)며 허성재(許性齋)선생의 문인이다. 향리의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쳤는데 모여드는 제자들이 많았다. 문집과 『소학촬요(小學撮要)』가 있다.

이용석(李容碩) : 성산인(星山人)으로 호는 오봉(五峯)이다. 매사에 사려깊고 영민하였으며 율파에 서당을 짓고 학도들과 경서를 읽고 강독하였다. 유고 몇 권이 있다.

최숙(崔瀟) : 자는 호윤(浩允)이며 어려서부터 족속인 경재(綱齋)에게 배웠다. 늦게는 중용 대학에 조예가 깊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경서를 자세히 설명하여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다.

최재순(崔載淳) : 호는 산우(山愚)임.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명성이 있었으나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향리로 돌아와 산수를 자적하며 여생을 보냈다. 유집이 있다.

최필순(崔必珣) : 호는 가정(嘉亭)이며 농와 상금(祥鎡)의 아들이다. 타고난 성품이 영민하고 시국에 대한 토론을 잘하였고 사리 판단이 밝았다. 저서로는 『화사(華史)』와 『동문약선(東文略選)』이 있다.

김우선(金羽善) : 호는 일담(一談)이며 의선(義善)의 아우이다. 천성이 어질고 인자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효우에 독실하였다. 약관의 젊은 나이에 고을의 선배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향약계를 설립하고 봄가을로 경서를 강독하였다. 향리에 일관재(一貫齋)라는 서당을 지었는데 학도들이 운집하였다. 중국의 사신 공영이(孔令貽)가 일관재의 서문을 지었다.

한치동(韓致東) : 호는 봉강(鳳岡)이다. 타고난 성품이 순박하고 독실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경서에 밝았다. 황극(皇極) 책수(策數) 음양(陰陽)의 이치에도 통하여 여러사람의 선망을 받았다.

제동찬(諸東纘) : 호는 운오(雲塢)이며 상린(尙麟)의 손자이다. 천성이 영민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깨끗하였다. 문장을 알기 쉽게 지었으며 재주와 명성이 있었다. 아우인 동식(東寔)과 나란히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의좋은 형제 ‘원방(元方)과 계방(季方)’에 비유하였다. 시문(詩文) 몇 권이 있다.

박진우(朴鎭佑) : 본관이 고성인으로 호는 추당(秋堂)이다. 경서에 관한 학설과 조정의 법규에 밝아 관공서에서도 존경하였고 성품이 자애롭고 진실하였다. 위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온정이 있었다.

구의익(具義翼) : 창원인으로 천성이 단정하고 아담하였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힘써 배

왔다. 서실이 있던 안산에 바위가 하나 있어 일심석(一心石)이라고 전각하니 사람들이 일심옹(一心翁)이라고 불렀다. 진주 축석루의 시회에서 장원을 하여 이름을 날렸다.

도현환(都珪煥) : 호는 무송(茂松)이며 장사미(張四未)의 문인이다. 욕심을 내어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도학에 심취하여 자신을 위한 학문에 몰두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으니 향리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최상준(崔尙濬) : 호는 연암(淵庵)이며 태규(泰逵)의 아들이다. 학문에 밝았으며 행동과 예의가 발라 스스로를 지키니 사람들이 다분히 사랑하고 존경하여 따르는 학자들이 많았다.

최구열(崔九烈) : 호는 위은(葦隱)이며 통정 필린(必麟)의 아들이다. 성품이 순박하고 진실하였으며 행의가 굳고 깨끗하였다. 효우가 있고 학문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3) 효자(孝子)

이진(李璿) : 철성인(鐵城人)이며 안경공 국현(國軒)의 증손이다. 16세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초야에 묻혀 은거하며 살았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모시고 산속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왜적의 잔당 5~6인이 한 밤중에 병기를 들고 쳐들어왔다. 이진이 베들다리를 들고 나와 혼자 막아내다가 적당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러나 부모는 그 틈에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숭(李嵩) : 성산인(星山人)으로 절도공(節度公) 거인(居仁)의 아들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는데 부친이 병이 들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약에다 타서 올려 병이 나았다. 그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가 내렸다. 문목공(文穆公) 한강 정구(鄭逵)선생이 함안(咸安)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묘지를 다시 단장하고 정려의 담장을 쌓았으며 제문을 지어 고유제를 올렸다.

이태빈(李泰彬) : 함안인으로 승지 후영(後榮)의 아들이다. 일찍이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변을 맛보아 증세를 살폈고, 어머니가 숨이 끊겼는데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우니 되살아났다. 지극한 효행이 알려지자 지평(持平)에 증직되었다.

최세창(崔世昌) : 전주인(全州人)으로 관서 득경(得溍)의 후예이고 진사 한명(漢明)의 아들이며 호는 회굴당(懷橋堂)이다. 아버지의 병에 천지신명에 빌었더니 사슴을 얻어 병이 낫게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통훈(通訓)에 증직되고 정려문이 내려졌다.

제명철(諸命喆) : 칠원인(漆原人)으로 충의공 제말 장군의 증손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상을 당하자 예로써 장례를 치루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만 먹고 지냈다. 또 나이 66세에 아버지의 상복을 추후하여 입었다. 일이 알려지자 장령(掌令)에 증직되고 정려를 받았다.

최유잡(崔由礪) : 전주인(全州人)으로 자는 자고(子固)이니 찰방 홍(洪)의 아들이다. 지성으로 부모를 모시어 살아있을 때 편안히 모시고 죽어서 상주의 도리를 다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또한 학문과 덕행으로도 세상의 선망을 받으니 후손들이 모범으로 삼았다.

최진추(崔震樞) : 의민공 소호 균(均)의 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나이 들어서도 양친이 당상에 계시니 날마다 곁에서 모시면서 기쁘게 해드렸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맞대고 바깥일을 알려드렸다. 출상을 당하여 상여가 울천(栗川)을 지나려는데 큰 비가 내려 상여가 지나가기가 어렵게 되자 공이 상여채를 잡고 통곡을 하니 갑자기 범람하던 냇물이 딱 끊겨 무사히 장례를 치렀다. 이러한 효행기를 만구(晩求) 이종기(李種紀)선생이 「단천도찬(斷川圖贊)」을 지어 세상에 알렸다.

이성년(李星年) : 함안인으로 호는 삼함당(三緘堂)이다.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를 정성으로 모셨다. 부모의 병에 약을 구하러 갈 때에는 영감을 받은 일이 많았다. 지성으로 부모를 모시니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고 누차 효자로 천거하였다.

이희(李僖) : 효자 송(嵩)의 종손이다. 8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을 소식(素食)을 하고 어머니의 병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을 잘라서 소생하게 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선교랑(宣敎郎)으로 증직하고 정려를 내렸다.

이평(李平) : 경주인(慶州人)으로 여염집에서 났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상을 당하자 죽만 먹고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그 효성에 감복하였던지 호랑이도 와서 지켜주었다. 그 부모가 살아생전에 참외를 좋아하였는데 겨울철 제사를 지낼 때에 참외가 무덤가에서

나와 제물로 차렸다.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겨울 폭설로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마을 사람들은 여막에서 얼어 죽었을까 걱정했으나 얼굴빛이 평시와 다름이 없었다. 대가면 유흥리 뒷산에 효행의 기적비(記蹟碑)가 있다.

이학중(李學宗) : 호는 모암(慕巖)이며 담년(聃年)의 아들이다. 부모의 병세가 위태로우니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드렸더니 효과를 보았다. 상을 당하여서는 애회하여 예절을 다하였고, 상을 마치자 은거하여 사람의 바른 도리를 찾아 독실하게 실천하였다.

이광조(李光朝) : 호는 내재(耐齋)이며 태빈(泰彬)의 증손이다.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아버지의 병에 좋다는 약을 구할 수가 없자 친지신명께 기원하자, 눈 속에서 메추리가 나오고 얼음 속에서 자리를 얻은 기적이 일어났다.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허선(許暉) : 김해인(金海人)으로 호는 죽오(竹塢)며 지현 묵(默)의 아들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른이 되어서는 추복(追服) 3년을 입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다. 또 제삿날을 당하면 애통해 하기를 초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하였고, 날마다 성묘를 하되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거르는 일이 없으니 향리에서 효자라 칭하였다.

황도갑(黃道甲) : 창원인으로 치흥(致興)의 아들이다. 부모의 상에 여묘살이 3년을 하였다. 그 아들 존검(存儉) 역시 효성이 지극하여 그 어머니가 등창이 나서 위태로운 경지에 이르렀는데 친히 입으로 종기의 고름을 빨아내어 등창이 나왔다.

이화국(李華國) : 운당 염(琰)의 7세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병에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켜 3년을 더 살았다. 이윽고 상을 당하자 슬퍼하는 모습이 절절하고 정성으로 예절을 다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이석일(李錫翹) : 호는 수암(睡庵)이다. 널리 배우고 글도 잘 하였다. 효성으로 양친을 모셨으며 온화한 낯빛으로 부모의 뜻을 받들었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정성을 다하였고 홀어머니를 모심에는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상례도 부친 때와 같이 하였다. 성재 허선생(許先生)에게 공부하면서 경서와 예서를 강독하였다. 매일 새벽이면 부모의 산소에 배알하였는데 늙어서도 거르지 않았다. 유고 몇 권이 있다.

정효거(鄭孝舉) : 통정 휴징(休徵)의 아들이다. 효성을 다하여 아버이를 섬겼으며 즐거운 낮빛과 온화한 태도로 그 뜻에 따를만한 것이라면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찍이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수학하였는데 언행이 집안에서는 효하고 이웃에는 겸손하고 너그러워 저절로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모암(慕庵)이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이극량(李克亮) : 자는 진여(進汝)이며 신신재(新新齋) 권보(權普)의 아들이다. 효우가 독살하였다. 아버지 병환에 의원을 찾아갔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앞을 인도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허벅지의 살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으로 올렸다.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 3년을 하였다.

최광침(崔光瞻) : 매국당(梅菊堂) 규(珪)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또 순박하고 자애롭고 인자하여 온 집안이 늘 화기가 돌았다. 부모의 병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올려 소생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3년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슬픔 속에서 지냈다.

박난입(朴蘭立) : 밀양인(密陽人)으로 천성이 순박하고 후덕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 3년을 마쳤다.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누차 증직하여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박치번(朴致蕃) : 밀양인이다. 효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포상을 받고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최규환(崔奎煥) : 호는 미암(美巖)이며 효자 진추(震樞)의 증손이다. 젊어서 경서와 사서에 모두 익숙하였는데 나이 80세에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도산(道山)에 흥학재(興學齋)라는 서실을 짓고 매월 초하루에는 학문을 강하고 또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하는 규약을 만들어 실천하였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고 평소에도 새벽이면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에는 신위가 살아있을 때와 똑 같이 정성을 다하였다. 고종황제로부터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정려를 받았다.

허동성(許東成) : 김해인(金海人)으로 호는 우헌(愚軒)이며 통정 건(健)의 아들이다. 어버

이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고 양친이 모두 구십상수(九十上壽)를 누렸다. 부모가 작고한 뒤에는 아우 동필(東必)과 함께 묘소로 가는 길을 닦고 아침저녁으로 성묘하고 배알하니 고을 사람들이 칠십노래자(七十老萊子)라 칭송하였다.

최광렬(崔光烈) : 호는 종모재(終慕齋)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학문이 넓고 깊이가 있었다. 부모 봉양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며 부모가 작고한 뒤로는 종신토록 사모하여 집에서 가까운 거리인 묘소에 하루 세 번씩 둘러보고 배알하였다.

최상각(崔祥珪) : 호는 제광헌(霽光軒)이며 명대(鳴大)의 손자이다. 부모 섬김에 독실하여 나이 82세에 아버지의 기일을 당하였는데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서글퍼하다가 목침을 벤 채로 세상을 하직하니 사람들이 모두 종신지모(終身之慕)라 하였다. 아버지가 작고하자 향리인 고향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새벽이면 반드시 가묘(家廟)에 배알하였고, 글을 읽는 공부도 일상생활의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고종 황제로부터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정려를 받았다.

박창신(朴昌臣) : 밀양인이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킨 효성이 있었다. 수직으로 가선(嘉善)에 증직되었다.

최상룡(崔祥龍) : 호는 송학재(松鶴齋)이며 첨추 광언(光彦)의 아들이다. 지극한 효행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 인자함이 있어 고을의 관아에서 효행을 추천하는 글이 여러 번 조정으로 올라갔다.

강문현(姜文顯) : 진양인 기국(紀國)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이 있었으며 그의 처 김씨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고 농사짓고 길쌈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등창을 앓자 부부가 주야로 빨아내어 병이 완쾌되었다. 수차례 효행을 추천하는 글을 조정에 올렸다.

최필한(崔必漢) : 효자 광침(光瞻)의 손자이다. 부모의 병이 위급해지자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니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였다. 아우 필진(必震)과 함께 지극한 효행이 있으니 향리에서 추천하고 감탄하였다.

최필홍(崔必鴻) : 호는 이정(耳亭)이며 백인재(百忍齋) 상집(祥集)의 아들이다. 부친이 홍역을 치르지 않아 매년 봄이면 반드시 병을 피해 요양을 하였는데 공이 일찍이 의사를 청하여 두종(痘種)을 접종을 시켰다. 집안이 넉넉하고 풍족하였으나 몸에 비단은 걸쳐보지 않았으니 검박해서였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추천하는 글이 여러 번 올려졌다.

최필준(崔必僑) : 호는 용산(容山)이며 금시당(今是堂) 상벽(祥璧)의 아들이다. 풍채는 관옥(冠玉)과 같고 성질은 온아(溫雅)하였다. 학문에 전념하여 침식을 잇을 정도로 깊이 연구하였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일들은 언제나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함에는 후하였다. 더욱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극히 독실하여 한 번도 부모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니 종족이 모두 공경하였다.

제한석(諸漢錫) : 호는 행촌(杏村)이며 낙요당(樂要堂) 명황(命璜)의 5세손이다. 천품이 깊고 무게가 있었으며 관대하고 너그러워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였다. 선친이 증기(腫氣)가 있어 걱정과 정성을 다했어도 낫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파랑새가 이상한 꽃을 공의 앞에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붙이니 증기가 나왔다. 장례를 치른 뒤로는 날마다 묘소에 올라 곡을 하였는데 아무리 덥거나 추위에도 성묘를 거르는 일이 없었다.

박진원(朴震元) : 밀양인으로 정언 문령(文齡)의 6세손이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 백리 밖에 가서 약을 구해 당일에 돌아오려니 밤이 삼경(三更)이 되었다. 느닷없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아 으르렁대는데 절박한 사정으로 간절히 타이르니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길을 비켜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뒤를 따라 호행(護行)하여 마을 앞에 이르니 사라졌다. 상을 당해서는 잠시도 빈소를 떠나지 않고 간절히 슬퍼하여 예와 정성을 다하였다.

최윤진(崔胤鎭) : 호는 춘오(春塢)이며 첨추 광언(光彦)의 증손이다. 덕망과 행실이 반듯하여 세상사람들이 존경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효로써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허경문(許慶文) : 호는 학파(鶴坡)이며 진관(震寬)의 아들이다. 상을 당해서는 꿈속에 계시를 받아 명당을 얻었고 달마다 성묘를 하되 비바람으로 날씨가 궂어도 거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 참다운 효자였다. 수직으로 부호군에 증직되고 고종 황제로부터 효로써 정려를 받았다.

이익룡(李瀾龍) : 호는 탄은(炭隱)이며 광벽(光璧)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성정이 착하고 행실이 반듯하여 부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고 상례를 당해서는 예절을 다하였다. 효행으로 정려의 명이 내려졌다.

배현문(裴顯文) : 진사 경(敬)의 증손이다. 그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 할 때에 손가락을 잘라 소생하는 효과를 보았다. 일찍이 집안에 불이 나 모든 가족이 불길을 피하느라 경황이 없을 때에 그 어머니 주씨(周氏)가 아흔 살의 노망기로 방 가운데로 도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현문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를 안고 나왔는데 미처 뜰에 미치지 못하여 집이 무너져서 온 몸이 불에 탔는데 어머니는 의상(衣裳)은 멀쩡했으나 화기(火氣)를 많이 마셔서 마침내 죽고 현문도 뒤이어 죽으니 관아에서 상례의 비용을 챙겨 주었다.

황학준(黃鶴俊) : 종국(宗國)의 아들이다. 부모에게 착실한 정성스러운 효행이 있었다.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증직되었다.

백사인(白師仁) : 봉래(鳳來)의 아들이다. 부모의 상을 치룸에 3년을 여묘살이 하였는데, 애회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았었다. 여러 차례 효행의 추천이 올려졌다.

박상묵(朴尙默) : 치번(致蕃)의 조카이다. 서당 선생이 『효경(孝經)』을 가르쳤더니 애독(愛讀)하여 책사(冊絲)가 끊어졌다. 10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3년을 소식하고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짚신을 삼고 산에서 나무를 하여 시장에 내팔아다가 공양을 하였다. 한 질의 『소학』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고 평생의 학업으로 삼았다. 향도의 천장이 여러 번 올려졌다.

이석표(李錫標) : 한흥(翰興)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김에 기쁜 마음이 돌아왔는지를 살피고 다른 일을 하였다. 매년 제삿날을 당하면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를 살아생전 때와 같이 하였다. 시는 곳이 바다와 가까워 생선 등 어물이 흔하였지만 상례 후로 6년 동안 소금과 죽만으로 연명하니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효자라 칭하였다.

김창석(金昌錫) : 공신 필만(弼萬)의 현손이다.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면서는 처방하는 약물에 정성을 다하고 천지신명께 기도 또한 극진하니 귀신이 감명하여 시슴이 제 발로 들어왔으며, 손가락을 잘라 목숨을 소생시키니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낸 진정한 효자라고 말하였

다. 태상조에 정려가 내리고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김경철(金景喆) : 영암군(靈巖君) 숙(淑)의 후예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행이 있었으나 그 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자 피눈물이 얼굴을 덮은 채 그 아내 심씨(沈氏)에게 끝까지 효도로 섬길 것을 부탁하고 죽었다. 심씨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워서 소생시켰으나 5일을 더 살고 죽었다. 심씨는 그 남편이 임종에 한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경철에게 누차 증직하여 좌윤(左尹)에 증직되었고 부부를 아울러 정려하라는 교지를 받았다.

김민철(金敏喆) : 아버지의 병에 대변을 맞보고 손가락을 잘랐으며 하늘에 아비의 목숨을 자신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빌어 깨어나서 7일을 더 살았다. 성질이 인자하여 병자년 대홍년에 굶어죽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살려낸 사람이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으며 조정에서는 정려를 명하였다.

이광봉(李光鳳) : 호는 면강재(勉強齋)이며 매헌(梅軒)의 후손이다. 천품이 곧고 반듯하였으며 기상이 높아 성현을 우러러며 살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어 자신을 갈고닦음에 실천을 앞세웠다. 송준필(宋俊弼)이 갈명을 지어 전해지고 있다.

이필규(李弼奎) : 호는 놀암(訥庵)이다. 바깥출입을 삼가고 학문을 독실히 닦고 행하였으며 부모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여 향리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늦게야 벼슬살이를 하여 장작랑(將作郎)이 되었다.

김용석(金鎔錫) :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행이 있어 부모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부모의 병이 위독해지자 변을 맞보고 하늘에 빌어 여러 번 감동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상을 당해서는 부모를 잃은 그리움에 슬픔과 정성이 두루 지극하였고, 예를 지킴이 심히 엄하여 추천하는 글이 여러 번 올라갔다. 효행으로 태상조에 정려를 명하고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박효근(朴孝根) : 완천(浣川) 덕손(德孫)의 10세손이다. 어머니가 병을 얻어 곧 운명하게 되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처방을 해주어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었다. 태상조에 동몽교관에 증직하고 정려를 명하였다.

김정팔(金定八) : 호는 동암(東庵)이며 탁영(濯纓)의 12세손이다. 아버지의 상례를 치룸에 사람들이 효자라 칭하였고, 어머니의 병에는 신인(神人)이 약을 주어 낫게 하였다. 그의 처 강씨(姜氏)도 다 같이 효행이 지극하여 어사가 상을 내리고 격려하였으며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태상조 계유년에 부부가 나란히 정려를 받고 누차 증직하여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황종익(黃鍾益) : 진하(振河)의 9세손이다. 천성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그 아버지가 등창을 앓았는데 친히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등창이 나왔다. 또 그 어머니가 종기를 앓았는데 변을 맞보고 그 병증을 알아내어 마침내 소생하는 기적을 얻었다.

최동립(崔東立) : 호는 송헌(松軒)이며 남호 익(灑)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평생에 부모의 뜻을 어겨본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만년에 눈이 어두우니 밥상을 올릴 때마다 수저를 쥐어주고 날날이 손을 끌어 가르쳐 드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물으니 사람들이 증자의 바른 효도에 비유하였다. 상을 당하자 슬픔을 가누지 못했으며 예절을 다하였다.

도원희(都元希) : 호는 애일당(愛日堂)이며 신장(愼長)의 후손이다. 계모를 섬겼는데 계모가 병이 있으면 매번 변을 맞보았고 노하여 매질을 하면 그 기력이 쇠한 것을 울면서 걱정하였다. 일찍이 밤중에 불이 나서 불길이 집을 빙 둘러앉으나 그 어머니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원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불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느닷없이 역풍(逆風)이 불어 모자가 무사히 빠져나와 살아나니 사람들이 효성의 감응이라고 말하였다. 원희는 수직으로 첨중추(僉中樞)에 증직되고, 증손 윤광은 수직으로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이희규(李曦奎) : 매헌(梅軒)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분수를 지키고 부모를 섬기는 데에 정성을 다하였다.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였지만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 또 언제나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얼굴에 항상 기쁜 빛을 지니고 지내니 향리에서 다분히 탄복하였다.

이철규(李哲奎) : 매헌(梅軒)의 후손이다. 효행으로 누차 증직되어 가선(嘉善)에 이르렀고, 그의 처 한씨(韓氏)는 열녀의 바른 행실로 고종황제 태상조 을유년(1885)에 부부가 함께 정려의 명을 받았다. 이후 여러 번 증직되어 이공은 참판에 이르고 한씨는 정부인의 첩지를 받았다.

이인규(李寅奎) : 을사년 가을에 그의 아버지가 통영 춘원면의 호적분규 사건이 일어나 열화(烈火)와 난석(亂石)으로 포위하고 핍박하니 막을 수가 없자 인규가 맨몸으로 불속으로 뛰어들어가 부자가 함께 죽었다. 분규가 진정되고 아버지를 구하려는 효행이 알려지자 태상조에 정려를 명하였다. 고성읍 교사리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제한모(諸漢謨) : 호는 동산(洞山)이며 척현 상옥(尙勗)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순박하여 어려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침 저녁 문안을 어김이 없었으며 모부인이 3년 동안이나 학질을 앓으니 공이 허벅지의 살을 잘라 약으로 썼더니 병이 나왔다. 아버지가 또한 눈이 어두워 출입을 못하니 공이 친히 업고 다녔다. 상례를 예법대로 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김정규(金精奎) : 김해인(金海人)으로 장사랑 병수(病壽)의 아들이고 벼슬은 도사(都事)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와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아 백약이 무효하여 구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었더니 갑자기 꿩이 날아 들어와서 약으로 썼더니 병이 나왔다. 그 뒤에도 조부가 병이 위중하여 하늘에 빌자, 신령이 일러준 자초(紫草) 뿌리를 구해 달여서 한 증기를 마시니 병이 쾌차하여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고을 사람들이 효도비를 세웠다.

최규진(崔奎鎭) : 정무공 진립(震立)의 8세손이다. 아우 규천(奎天)과 함께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이 있어 사람들이 최씨 집안의 쌍효(雙孝)라고 칭찬하였다. 그의 처 정씨(鄭氏) 역시 지극한 정성으로 시부모를 섬겼으며 병이 있으며 매번 변을 맛보았고 목욕재계하고 지성으로 빌었는데 그때마다 감응이 있었다. 일이 알려지자 정려의 은전을 받았고 유주목(柳疇穆)이 정려기를 지었다. 고을을 읍기는 비용으로 곡식 1만포를 기부하여 사헌부 감찰을 제수 받았다.

곽인한(郭仁翰) : 현풍인(玄風人)으로 천성이 순박하고 후덕하여 숨은덕이 있었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모를 봉양함에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장례를 치룸에도 예(禮)로써 상례를 치루니 향리에서 칭찬하였다.

박영회(朴瑛會) : 효근(孝根)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병에 좋다는 약을 구하던 길에 눈 속에서 백화사(白花蛇)를 얻어 다려서 올리니 신기한 효과가 있었다. 태상조에 동몽교관에 증직하고 정려를 받았다.

최동간(崔東幹) : 호는 송와(松窩)이니 남호 익(瀾)의 아들이다. 일찍 가훈을 따라 예절이 법도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사람들이 효우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공의 형제를 말하였다. 수직으로 가선(嘉善)에 올랐다.

김수일(金壽鎰) : 정팔(定八)의 아들이다. 그의 처 차씨(車氏)와 아우인 형진(馨鎭) 기호(基鎬) 상옥(祥玉) 덕련(德鍊)이 모두 지극한 효행이 있었다. 고종황제의 정려를 받았다.

제한승(諸漢承) : 어려서부터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순종하기로 일을 삼았다. 아버지의 나이가 구순(九旬)이 넘었으니 공도 노백수(老白首)가 되었지만 항상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모시고 밤이면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하여 덮어드렸으며 밖에 나가면 일의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듣고 본대로 말씀해 드렸고 좋고 나쁘고 간에 상세히 고하여 그 뜻을 즐겁게 해드렸으며 상을 당해서는 어린아이처럼 호곡하였다. 향리에서 누차 표창하려 하였으나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김성옥(金聲玉) : 김해인으로 가선 취형(就亨)의 증손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천성에서 우러나왔으며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었고 부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반드시 힘을 다해 구하여 봉양하였다. 세상에서 일꾼기를 “효순(孝順)은 효순자(孝順子)를 낳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뒤에 비를 세워 효행을 기록하였다.

김태련(金泰鍊) : 김해인(金海人)으로 탁영(濯纓)의 후손이다. 그의 아우 간련(柬鍊), 국련(國鍊), 상련(尙鍊), 호련(虎鍊)과 태련의 처 함씨(咸氏)가 모두 효행이 있어 갑술년에 유림들이 추천하여 이듬해 봄에 태련 상련은 함께 정려의 은전을 받았고, 그 뒤 임오년에 국련 호련이 또 나란히 은전을 받았다. 예조판서 홍우길(洪祐吉)이 효행의 정려기를 지었다.

유성록(劉聖祿) : 강릉인(江陵人)이다. 아버지의 병에 대변을 맛보아 병증을 진단하고 위급해서는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켰다. 사람들이 삼세효가(三世孝家)라 일컬었으며 비를 세우고 행적을 기록하였다.

이승(李昇) : 경주인(慶州人)이다.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백 가지 약이 효험이 없었다. 하루는 늙은 스님이 찾아와 문 앞에서 절을 하고 산삼 두 뿌리를 값도 안 받고 건네주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의 처 문씨(文氏)도 그 시아버지가 숨이 멎을 때 손가락을 잘라

쾌히 살아나서 여생을 마쳤다. 부부에게 정려의 명이 내렸다.

최기순(崔麒淳) : 동둔녕(同敦寧) 동한(東漢)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평생 부모의 뜻을 어긴 일이 없이 팔십 년을 모시고 살았다. 또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이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없이 편안하게 영화를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효행으로 참봉을 지냈다.

김재득(金載得) : 그의 아버지의 나이가 98세가 되어 노병이 깊어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재득 역시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하늘에 빌고 복두칠성에 비는 등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쏟아 놓으니 한동안 살아나서 바로 완전한 사람처럼 되었고 그 뒤에 나이 108세가 되어 재득이 상복도 입지 못할 처지에도 애절하게 슬퍼함이 나타났다. 시묘살이 3년을 하였다. 향도의 표창이 있다.

허진(許鎭) : 양천인(陽川人)으로 호는 침계(枕溪)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또 문학이 있었다. 부모를 봉양함에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였다. 일찍이 계모를 섬겼는데 병구완에 좋다는 고양이나 뱀까지도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올렸으며, 만년에도 성묘 걸음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효자전에 실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구만면 효락리에 침계재(沈溪齋)가 있어 지금도 후학들이 모여 고전을 읽고 있다.

염덕린(廉德麟) : 해주인(坡州人)으로 효성이 출중하였다. 아버지의 상에 여묘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보호해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후인들이 비를 세워 효행을 기록하였다.

정수령(鄭守纒) : 동래인으로 정절공 규(規)의 후손이다. 어머니가 병이 깊어 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 손가락의 피를 뽑아 입에 드리우니 소생하여 5년의 수명이 더 연장되었고, 아버지가 풍병으로 고생하였는데 의원의 처방이 검은 뱀이 가장 좋다고 하여 백방으로 구하여 썼으며 겨울철에는 건포를 만들어 17년을 계속하였더니 병이 완쾌되어 여년(餘年)을 다 마쳤다.

최정순(崔鼎淳) : 의민공(義敏公)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80세를 넘기면서 한 번도 그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그의 처 배씨도 지극한 정성으로 평생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던 일을 집안이나 향당에서 칭찬해 마지않았다.

최국형(崔國亨) : 진사 효문(孝文)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종기를 앓아 고생하자 입으로 빨아서 낮게 한 일로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고 정려의 명이 내렸다.

최지호(崔智鎬) : 동훈 문권(文權)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나이 84세에 병이 위독하여 낫지 않으니 의원이 약을 끊고 운명하기만을 기다렸다. 지호가 하늘에 통곡하고 아버지 목숨을 자신으로 대체해 달라고 2주야를 빌고 잠도 단(壇) 아래에서 노숙을 하더니 다시 3년을 더 살아 87세의 장수를 누리고 작고하였다. 효행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서태순(徐泰純) : 사과 흥겸(興謙)의 증손이다. 효성이 하늘에 닿아 관찰사가 품계를 올려 사헌부 감찰에 증직되었고 뒤에 가선(嘉善)에 증직되었다.

한학동(韓學東) : 청계 견(堅)의 5세손이다. 아버지의 병에 3년을 곁에서 모시고 좋은 약재를 찾아 백방으로 가료를 하였다. 향도(鄉道)에서 누차 천장을 올려 태상조(太上朝) 기축년에 정려의 명이 내리고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배기오(裴箕五) : 그의 아버지가 병이 났는데 마당의 잡초 속에서 썩알을 얻어 삶아서 올리니 효과를 보았고, 어머니의 병에 그의 처 김씨와 함께 하늘에 빌고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예를 다해 장례를 치렀다. 그의 처 김씨는 열행효열로 정려의 은전을 입었으며 기오는 가선(嘉善)에 증직되었다.

박치상(朴致祥) : 밀양인이다. 그의 처 이씨와 함께 지성으로 부모를 섬겼다. 집이 가난하여 치상은 짚신을 삼고 이씨는 길쌈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하였다. 어머니가 반신불수로 행보를 못하였는데 혹 일어나고 싶어 하면 치상은 앞에서 부축하고 이씨는 뒤에서 부축하여 어미를 편히 모셨다. 효행의 정려가 있다.

최필질(崔必耆) : 거산(巨山)의 후손이다. 부모의 시묘살이를 하는데 천막이 없이 맨땅에서 초석 한 자락만 가지고 시묘를 하였다. 하루 저녁에 느닷없이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것으로 여기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가서 보니 형상이 멀쩡하였고 거처는 온실처럼 훈훈한 기운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계금(契金)을 모금하여 기실비(記實碑)를 세웠다.

김달옥(金達玉) : 탁영(濯纓)의 11손이다. 아우 선옥(善玉)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어릴 때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복(服)을 입지 못하였다 하여 성년이 되어 3년의 복을 입었다. 형제간에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이르기를 “피차에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듯이 한다.” 라고 하였다. 조호래(趙鎬來)가 행장을 짓고 하겸진(河謙鎭)이 묘갈을 지었다.

천두석(千斗錫) : 충장공 만리(萬里)의 후손이다. 양친을 봉양함에 술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혹 아버지가 출타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길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 모시고 돌아왔다. 제삿날이면 살아있는 듯 정성을 다하였다. 아우 셋과는 우애가 더욱 독실하였다.

박익진(朴翼鎭) : 어린 나이에 살림살이를 맡아 그의 처 최씨와 함께 지성으로 살림을 꾸려나갔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받드니 한 마을에서 모두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소금과 죽만 마시고 3년을 넘겼다. 먼내 사람들이 계금(契金)을 모아 효행을 표창하였다.

박희수(朴熺洙) : 죽산인(竹山人)으로 진부(鎭夫)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증으로 거의 운명하게 되었는데 희수가 손가락을 찢어 입에다 쏟으니 소생하여 천수를 누리고 살았고 그 아버지의 병환에도 변의 달고 씌를 맛보아 간호하여 양친 모두 오래오래 모시고 효도하였다. 향도(鄕道)의 추천서가 여러 번 조정에 올라갔다.

4) 효녀(孝女)

박소사(朴召史) : 남편이 죽고 혼자되어 친정어머니에게 의탁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나니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켰다. 그해 겨울에 또 병이 나서 기절하자 또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키니 관아에서 기특하게 여겨 상을 후하게 내리고 관찰사에게 효행기록을 보고하였다.

이씨(李氏) : 함안인(咸安人)으로 필규(秘奎)의 딸이며 최동호(崔東鎬)의 처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 성품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나이 늙고 친정집이 가까워 매번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먼저 입에 넣지 않고 자녀를 시켜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아들 규한(奎瀚)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살았을 때에 했던 대로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5) 효부(孝婦)

도씨(都氏) : 황존검(黃存儉)의 처이다. 남편이 죽은 날 바로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임종에 시부모 부탁한 말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 시부모를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 시아버니가 병이 들어 7년을 간병해도 차도가 없자 도씨는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 올려서 나았고 또 재차 병이 나자 자기의 허벅지를 잘라 드려 영영 쾌차하여 천수를 누리고 여생을 마치니 향당에서 여러 번 장계를 올렸다.

박씨(朴氏) : 밀양인으로 규환(圭煥)의 딸이고 함안(咸安) 이태규(李泰奎)의 처이다. 시어머니가 숙병으로 거의 운명할 지경에 이르러 박씨가 하늘과 신명에게 빌었으나 낫지 않았다. 의원의 말이 잉어기름을 내어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박씨가 용추계곡으로 가서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었더니 갑자기 한 자가 넘는 잉어가 뛰어나와 잡아다가 잉어기름을 내어 드리니 그 병이 나았다. 마을에서도 효부를 칭송하였다.

백씨(白氏) : 수원인(水原人)으로 경수(敬洙)의 딸이며 제정억(諸廷億)의 처이다. 시어머니가 여러 해 동안 해수병을 앓아 고생했다. 백씨가 약을 쓰는 데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집이 가난하여 약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 팔아서 약값은 물론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해 올렸다.

이씨(李氏) : 장성숙(張聖淑)의 처이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가 3년이나 병을 앓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병구완을 하였는데 더러는 이웃집 아낙네의 젖을 빌어서 약을 달여 올리기도 하고, 운명할 즈음에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워 3일 동안이나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김씨(金氏) : 최병립(崔秉立)의 처이다. 시부모가 몇 달을 앓아누웠는데 약을 달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곳은일을 동서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윽고 병세가 위급해지자 천지신명께 지극한 정성으로 빌었으며 그래도 차도가 없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허벅지의 살을 떼어서 약으로 다려올리니 병이 즉시 나았다. 그 10여일 후에 마침내 운명하니 장례를 치르는 예절에 한 가지라도 서운함이 없게 하였다.

강씨(姜氏) : 김정팔(金定八)의 처이다. 평소에도 효성이 지극했지만 시어머니의 병이 위급해지자 허벅지의 살을 떼어서 약에 섞어서 다려 올렸다. 태상조에 정려의 명이 내리고 숙

인(淑人)으로 증직되었다.

정씨(鄭氏) : 최석구(崔錫球)의 처이다. 남편이 죽자 시신 곁에 누워서 사흘을 먹지 않고 죽으려 하니 시부모가 울면서 간절히 타일렀다. 정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죽으면 시부모도 또한 죽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살아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기를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였다. 시부모가 모두 편히 80의 장수를 누렸다. 태상조에 정려의 명이 내렸다.

홍씨(洪氏) : 김차련(金次鍊)의 처이다. 공손하게 여자의 도리를 다하고 조상의 기제사 받들기를 정성스레 하였다. 시아버지의 병에 꿩고기가 특효약이라 하여 홍씨가 하늘을 우러르고 간절히 기도하니 꿩이 품속으로 날아들어 삶아서 시아버지에게 바치니 병이 나았다.

정씨(丁氏) : 배봉원(裴奉源)의 처이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눈이 멀어 정씨가 지성스럽게 북두칠성에 빌고 다반으로 약을 썼더니 눈이 갑자기 다시 밝아졌다. 또 겨울철에 생채를 먹고 싶어 하니 눈 덮인 들판에서 나뭇잎이 돌아났고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꿩이 저절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차씨(車氏) : 연안인(延安人)으로 진석(振錫)의 딸이며 김수일(金壽鎰)의 처이다. 시아버지가 황달을 앓아 여러 가지 처방을 하였지만 차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목욕재계하고 천지신명께 지성으로 빌었더니 꿈에 좋은 약제를 얻어 처방을 했더니 병세가 호전되었다.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하였다. 『오륜행실록』에 실려 있다.

이씨(李氏) : 함안인으로 최필순(崔必詢)의 처이다.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착해서 시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병이 있으면 의원의 화제(和劑)를 쓰지 않고 손수 약을 지어서 썼다. 하루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한 움큼이 되는 지초 뿌리를 얻어 달여서 올렸더니 병이 낫자 모두 귀신의 감응이라 하였다. 또 남편을 공경스레 경대하여 한 번도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으며 늘 정숙하였다.

이씨(李氏) : 함안인으로 갑규(甲奎)의 딸이고 최영렬(崔潐烈)의 처이다. 집이 가난하여 시부모를 공양하기 어려웠는데 친정집은 가까워서 매번 양식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공양하였고 더러는 손에 광주리를 끼고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나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 집을 효

도하는 집이라 불렀으며 향리에서 포상을 했다.

이씨(李氏) : 이상태(李相台)의 처이다. 남편이 피를 토하는 병이 있어 하루에 몇 되의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으면 이씨가 칼로 허벅지의 살을 잘라 피는 받아 입에 드리우고 살은 국을 끓여 먹었으며 손가락을 찢어 피를 받아 먹여 5일의 목숨을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이윽고 남편이 죽자 바로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그 시부모가 피눈물로 타이르는지라 이씨가 마음을 바꾸어 슬픔을 참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셨다. 효부를 추천하는 도장(道狀)을 여러 번 올라갔다.

허씨(許氏) : 김해인으로 정성(正晟)의 딸이며 정환기(鄭煥奇)의 처이다. 남편이 나병이 들어 날마다 뱀을 잡아 약으로 썼다. 혹은 끓이고 혹은 회를 쳐서 먼저 맛을 보고 처방해 썼는데 모두 1천여 마리를 써서 병이 완치되어 13년을 더 살다가 운명하였다. 시아버지가 중풍(中風)을 맞아 말을 못하고 전신불수가 되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었으며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손수 떠서 드려야 했고 심한 변비 증세로 대변이 막혀 손으로 파내야 하였으나 조금도 더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4년을 시봉하였으나 게으름이 없으니 마을에서 여러 번 표창을 하였다.

박씨(朴氏) : 밀양인으로 김의봉(金義奉)의 처이다. 그 시아버지는 허로증(虛勞症)이 있고, 시어머니는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 하는 정충증(怔忡症)이 있어 늘상 병석에 누워 있었다. 박씨가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 시간을 어기지 않고 미음을 쑤어서 올렸다.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거나 태만한 일이 없었더니 드디어 시부모의 병세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몇 해 뒤에 시어머니가 재차 병이 나서 여름철에 차가운 얼음을 먹고 싶어 하여 박씨가 소반에 물을 떠 바쳐놓고 하늘을 우러러 울면서 빌었더니 밤사이에 소반 위의 물이 어리어 얼음이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그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제 6항 열녀(烈女)

옥지(玉只) :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살았는데 밤에 어떤 자에게 욕을 당하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승람에 기록이 있다.)

제씨(諸氏) : 증 참판 호(灑)의 딸이며 찰방 최진호(崔振虎)의 처이다. 임진란에 왜병의 폭행으로 순절하였으며 소생은 없었다.

장소사(姜召史) : 박시소(朴始素)의 처이다. 나이 20에 지아버를 잃었다. 그때에 어린애가 있었는데 남의 젖을 얻어 먹여서 살릴 길이 없기에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고 우선 목숨을 부지하였다가 아이가 밥을 먹게 되자 목을 매어 죽었다.

설소사(薛召史) : 만창(萬昌)의 딸이다. 남편을 잃자 어떤 자가 순결의 뜻을 빼앗고자 하니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거류산 자락에 향교에서 세운 '설소사정려비'가 있다.

신씨(申氏) : 선교랑 이희(李僖)의 처이다. 남편이 일찍 죽자 그 시신을 곽속에 넣고 장례의 예의를 몸소 주관하여 모두 반듯하게 하였다. 임진왜란 중에도 빈소에 향불을 끊지 않았는데 막 초하루 제사를 올리려 할 때에 적이 쳐들어오니 적을 피하지 못할 줄을 알고 스스로 칼을 물고 자결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를 명하였다.

어씨(魚氏) : 승지 약추(躍湫)의 딸이며 사옹 박애상(朴愛祥)의 처이다. 정유재란에 박애상이 굴도 앞바다에서 순국하니 어씨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박애상은 영혼을 불러 고을의 서쪽 천마산(天馬山)에 장례를 지냈고 어씨도 시신을 찾아 그 아래에 부장하였다.

한씨(韓氏) : 허겸(許謙)의 처이다. 남편이 죽은 뒤에 7일을 곡기를 끊다가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정미년에 암행어사가 서계를 올려 정려를 명하였다.

박씨(朴氏) : 이덕원(李德元)의 처이다. 부군이 죽자 장례를 예제대로 치루고 바로 물과 곡기를 끊었지만 목숨이 연명되자 조용히 자살하였다. 계유년에 어사의 서계에 올라 정려를 명하였다.

권씨(權氏) : 허묵(許默)의 처이다. 임신 중에 남편을 잃어 실낱같은 목숨을 억지로 연장하고 짐짓 장례를 해산의 날짜만큼 연기하게 하여 해산을 하자 즉시 칼을 물고 자결하여 남편과 같은 무덤에 묻혔다. 고종 태상조에 정려의 명이 내렸다.

이씨(李氏) : 문희순(文熙純)의 처이다. 시집은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죽자 즉시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시부모의 타이름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장례 하루 전에 약을 마시고 자결하여 같은 무덤에 묻혔다.

하씨(河氏) : 최한진(崔瀚鎭)의 처이다. 부군이 일찍 죽자 장례의 절차를 예법대로 하고 마치 슬픈 기색이 없는 것처럼 하여 시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장례 전 2일에 몰래 소금물을 억지로 마시고 죽어 마침내 같은 무덤에 묻혔다.

이씨(李氏) : 최요진(崔堯鎭)의 처이다. 남편이 죽은 지 6일 만에 유복자를 낳아 정상으로 기르고 시부모도 정성을 다해 섬기어 어린 아이로 하여금 조부모에게 정을 붙이게 한 뒤에 3년상을 마치는 날에 조용히 자결하였다. 고리 속에는 의복 세 벌이 있었는데 아이가 큰 뒤에 입도록 준비한 것이고, 또 유서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집안으 명성을 잘 유지하라는 부탁이었다.

허씨(許氏) : 제사영(諸思榮)의 처이다. 친정에 있을 때부터 성품이 한결같이 단정하고 점차로 성숙하여 죽히 부덕을 갖추었다. 시집을 와서도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을 따르며 집안을 성실히 꾸려나갔다. 남편이 병이 들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서 연명시키기도 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서 죽으려 했으나 어린 자식들 때문에 뒤로 미루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남편 곁에 묻어 달라고 하고 자결하였다. 장사를 지낼 때에 무덤을 파니 치표(置標)로 주발 하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씨(李氏) : 벽진인(碧珍人)으로 승효(承黻)의 딸이며 일계 최동태(崔東泰)의 처이다. 시집을 와 시부모를 잘 섬겼다. 일계가 학문과 덕망이 저명해진 데에는 부인의 내조(內助)가 많아 일계가 항상 좋은 배우자로 대우하였다. 남편의 장삿날이 정해지자 침실로 들어가서 시집을 때 입고 온 옷을 입고 태연하게 죽었다.

이씨(李氏) : 전주인(全州人)으로 효자 동몽교관 국로(國魯)의 소녀요, 경주(慶州) 최상래(崔祥來)의 처이다. 나이 18세에 시집와서 겨우 석 달 만에 남편이 병이 드니 약 단지과 죽냄비를 몸소 챙기고 정성스럽게 하여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 태상조 을사년에 정려의 명이 내렸다.

김씨(金氏) : 김해인으로 전주 최홍언(崔洪彦)의 처이다. 그 남편이 병에 걸렸으나 백약이 효험이 없었다. 운절할 즈음에 손가락을 잘라 입에 부으니 소생하여 거의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다. 김씨가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유복자(遺腹子)가 몸 안에 있기에 그만두었다.

최씨(崔氏) : 전주인으로 상대(祥大)의 딸이며 허휘(許暉)의 처이다. 그 남편이 급병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 구명하려 했으나 며칠 만에 숨을 거두니 최씨가 하늘에 통곡하고 발을 동동 굴렀으나 구제할 길이 없었다. 최씨가 장례의 절차를 손수 처리하고 빈소를 차리는 3년을 빗질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으며 부군이 임종에 한 말로써 종신토록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권씨(權氏) : 증 이조참판 월암 용현(龍見)의 후손으로서 최광락(崔光洛)의 처인데 정숙한 부덕이 있었다. 그 남편이 병이 위급해지자 약 수발로 손가락을 자르는 등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고 병이 더욱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키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향리나 집안에서 모두 칭송하였다.

이씨(李氏) : 최상금(崔祥鎡)의 처이다. 단정하고 정숙하였으며 자상한 부덕이 있었다. 부군의 병에 하늘에 대신해 줄 것을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윽고 부군이 돌아가자 출상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곡기를 끊고 순절하였다.

장씨(張氏) : 인동인(仁同人)으로 통정 김진용(金震鎔)의 처이다. 남편이 피를 토하는 각혈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니 장씨가 밤마다 천지신명께 빌었고 임종에는 손가락을 잘라 입에 드리워서 하루를 더 살다가 죽었다. 장씨가 따라 죽으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의 빈소가 집안에 있고 유복자가 뱃속에 있는지라 고통을 참고 상제를 마쳤다. 마침내 간신이 유복자(遺腹子)를 얻어 바르게 길렀더니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김씨(金氏) : 김해인으로 병련(病鍊)의 딸이며 배기오(裴箕五)의 처이다. 시어머니의 병에 재계하고 복두칠성에 비니 목숨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수를 누렸다. 지아버의 병에는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의 살을 잘라서 낫게 하여 부부가 또한 백년해로하였다. 열행이 알려지자 정려를 명하였다.

강씨(姜氏) : 구학령(具鶴齡)의 처이다. 나이 20세에 그 남편이 원통하게 죽으니 강씨가

기절하였다가 살아나서 훌훌 뛰면서 통곡했다. 집안사람들이 혹시라도 죽어버릴까 걱정하여 곳곳마다 방비를 하였다. 이윽고 장례 날이 되니 강씨가 목욕재계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전(祭奠)의 마련은 내가 손수 맡겠다.” 하고 발인할 때 모든 친척들이 상여를 따라가는 틈을 타서 강씨가 빈소 앞에서 목을 매었는데 온 집안에서 달려가서 구하였으나 이미 미치지 못하였다. 묘는 합장하였다.

한씨(韓氏) : 청주인(淸州人)으로 감찰 득력(得烈)의 딸이며 영암 김치목(金致穆)의 처이다. 임신년 홍경래의 난에 한씨는 장단의 친정에 있었고 남편은 본현의 창동(倉洞)에 있었는데 천리 먼 길에 시가(媿家)의 4대 신주(神主)를 친히 모시고 와서 제수를 마련하는 데는 머리카락을 베고 옷을 팔아서 마련하였다. 이윽고 남편이 병이 들어 몇 달을 고생하니 변을 맛보고 병세를 진단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우니 깨어나서 사흘을 더 살다가 죽었다. 고종 태상조 임오년에 정려의 명이 내렸다.

허씨(許氏) : 최동식(崔東軾)의 처이다. 친정집에 있을 때부터 정숙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시집을 와서도 가족이나 이웃과 잘 화합하였다. 남편이 병을 얻어 여러 달을 신음하였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자 허씨가 칼로 허벅지를 찢러 피를 받아 입에 드리워 한참 만에 소생하였고 병증이 호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살을 베어 먹이니 그 병이 완쾌되어 30년을 해로(偕老)하다가 죽었다. 고종 태상조 을사년에 정려를 명하였다.

정씨(鄭氏) : 진양인(晉陽人)으로 주한(周翰)의 후손이며 밀양 박규환(朴圭煥)의 처이다. 남편이 병이 들자 지성으로 병구완을 하였다. 이윽고 임종 무렵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웠으나 그대로 죽으니 남편의 시신 곁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죽어도 한 날 죽고 묻혀도 한 곳에 묻히겠다.” 하고 따라 죽으니 사람들이 그 정렬(貞烈)을 칭송하였다.

하씨(河氏) : 찰방 자철(自澈)의 증손녀이고 이화옥(李華玉)의 처이다. 남편이 일찍 눈이 멀자 걸을 때는 하씨가 반드시 앞에서 인도하였고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반찬을 가리켜 주기를 30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남편의 병이 들어 위중하자 매일밤 하늘에 대고 쾌유를 빌었다. 이윽고 상을 당하니 시부모에게 말씀드리기를 “살아서는 앞에서 인도하였으니 죽어서는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라 하고 자결하여 남편을 따라갔다.

배씨(裴氏) : 계류(啓旒)의 딸이며 창원 황우혁(黃祐赫)의 처이다. 시부모를 극히 효성의

로 섬겼고 일을 당해서는 장례식이며 대상의 절차를 모두 예에 맞게 하니 마을 사람들이 포장(褒狀)을 올리려 하였는데 배씨가 극력 만류하였다. 남편 우혁이 3년을 학질을 앓으니 배씨가 하늘에 빌고 자기 허벅지를 찢러 피를 받아 약에 타서 먹이니 병증이 호전되었다. 뒤에 담증(痰症)으로 끝내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 배씨도 칼로 목을 찢러 자살하려는 것을 늙은 시어머니가 보고 울면서 말하기를 “죽을 나이가 된 나와 강보에 싸인 어린 것을 누가 기르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니 배씨가 차마 죽지 못하였다. 그때 배씨의 나이 29세였다.

정씨(鄭氏) : 이재봉(李在鳳)의 처이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곧고 이웃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도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을 공경으로 대하였다. 남편이 병을 얻어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에서 피를 뽑았으나 겨우 이들의 목숨만 연장하고 마침내 소생하지 못하니 정씨가 수십 일 동안 곡기를 끊고 따라 죽었다.

김씨(金氏) : 김해(金海) 김영준(金永俊)의 처이다. 남편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니 약을 쓰고 하늘에 빌기도 하였으나 효험이 없자 김씨가 손가락을 잘라 10일을 더 연명하였으나 마침내 세상을 떠나니 김씨가 효성으로 시부모를 모셔 갖은 성심을 다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정려의 명이 내렸다.

이씨(李氏) : 박상환(朴相環)의 처이다. 남편이 일찍 요절하니 이씨가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차가운 겨울철의 한밤중에 이씨가 몰래 문밖으로 나와 마당에 넘어졌다. 가족들이 부축하여 방에다 들여다가 눕혔으나 몸은 얼음덩이이고 숨은 벌써 멎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옛새를 곡기를 끊고 7일째가 되던 날이다. 면민(面民)이 열녀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였다.

이씨(李氏) : 이웅불(李熊拂)의 처이다. 남편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폭풍을 만나 익사하였다. 이씨가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을 하고 길으로는 되레 시부모를 위로하였다. 시신을 수습한 이튿날 울면서 고하기를 “저에게 길쌈을 하여 벌여놓은 돈이 약간 있으니 원컨대 무당을 불러 죽은 지아비의 수중혼(水中魂)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라 하고 드디어 익사한 곳에다 천막을 치고 향을 피우고 하룻밤을 지냈다. 집안사람들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이씨가 집으로 들어가서 시집을 때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남편이 죽은 곳으로 달려가 몸에 돌을 매달고 빠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열녀비를 세워 사적을 기록하였다.

최씨(崔氏) : 삭녕인으로 계욱(啓郁)의 딸이며 진양 정한철(鄭漢喆)의 처이다. 남편이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자르고 북두칠성에 비는 등 극진히 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남편이 임종에 이씨의 나이 22살로 남편과 동갑이었다.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모시고 평생에 웃음소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조카인 진권(鎭權)으로 뒤를 잇고 8살에 서당에 들어갔는데 밤이면 길쌈하는 등불 곁에서 글 읽는 소리를 반드시 듣고 때가 되면 그치기를 엄한 스승과 다름없이 하였다. 마침내 그 아들이 자라서 유학으로 명성을 얻게 되니 세상에서 효열쌍전(孝烈雙全)이라 일컬었다. 여러 번 표장(表狀)이 있었다.

천씨(千氏) : 경우(景祐)의 딸이며 진양 정익완(鄭益完)의 처이다. 그 남편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집에 처음 가는 재행일(再行日)에 병을 얻어 중도에서 죽었다. 천씨가 마음으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시부모를 위로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니 시부모가 가엽게 여기면서도 믿었다. 이렇게 10여 일이 지난 뒤 갑자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침실을 뒤져보니 상자 속에 10여 일 먹지 않은 밥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사비(私婢) : 자은춘(自隱春) 21살에 지아비를 잃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여 수절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가 몸을 더럽히려 하니 마침내 자살하였다.

7) 충의(忠義)

최명우(崔命佑) : 수용(水勇)의 손자이다. 중종조에 정국원종2등공신(靖國原從二等功臣)으로 공신에게 내려주는 사패지(賜牌地)가 있다.

허형(許珩) : 원필(元弼)의 아들이다. 중종조에 정국공신으로 벼슬은 중성판관(鍾城判官)에 이르렀다.

황선(黃璫) : 익성공 희(喜)의 8세손이다. 임진왜란에 이충무공을 따라 싸웠는데 한산대첩과 노량해전의 승전에 모두 그의 힘이 있어 원종훈에 책록되고 벼슬은 만호(萬戶)이며 또 효행이 있었다.

허우(許祐) : 김해인이다. 정유재란에 의병을 모아 창의(倡義)하여 적을 토벌하여 그 공으로 군기침정이 되었다. 뒤에 무과에 올라 만호가 되어 군정을 잘 다스리니 도관찰사가 포상

을 품계하여 나라에서 크게 표창하였다. 병자란(丙子亂)에 또 칼을 잡고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였다. 벼슬은 우후였다.

노임수(盧任守) : 광주인(光州人)이다. 임진왜란에 적을 토벌한 공으로 내금위의 우림장(羽林將)이 되었다.

이덕상(李德祥) : 철성인으로 습(隰)의 5세손이다. 임진란에 이충무공의 막하에 있으면서 적의 수급을 바친 공으로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어 수문장을 지냈다.

황근(黃瑾) : 선(瑄)의 아우이다. 형과 함께 의병으로 궤기하여 전공을 세워 원종이등공신에 책록되어 부장(部將)을 지냈다.

정규(鄭奎) : 확(廓)의 아우이다. 사복(司僕)으로 있으면서 임진란을 당하여 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워 원종훈(原從勳)에 책록되어 수문장을 지냈다.

정섬(鄭閃) : 규(奎)의 아우이다. 백의종군하였으나 승전한 공이 있어 원종훈에 책록되어 부장(部將)을 지냈다.

정부억(鄭富億) : 연일인이다. 임진왜란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선무이등공신(宣武二等功臣)에 책록되었고 벼슬이 훈련판관(訓練判官)에 이르렀다.

구응신(具應辰) : 창원인으로 직제학 종길(宗吉)의 6세손이다. 임진란에 제포만호(齊浦萬戶)로 있으면서 왜적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 올라 김해의 노현(露峴) 아래까지 추격하다가 적의 칼에 찔려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죽으면서 오히려 적을 꾸짖기를 “나는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다. 너희 개돼지들은 어찌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느냐?” 고 호령하였다. 원종이등훈에 책록되었다.

구응삼(具應參) : 응신(應辰)의 아우이다. 임진란에 훈련정(訓練正)으로서 8년간을 임금의 수레를 호종(扈從)하면서 혹은 몸을 가며이 여기고 적진에 뛰어들어 참획한 수급이 수없이 많아 원종일등훈에 책록되었다.

구응성(具應星) : 호는 송은(松隱)이며 응신의 증제이다. 임진란에 주부(主簿)로 있다가 맨손으로 적진에 뛰어들었으나 그가 전장에 나타나면 당할 자가 없으니 향리에서 달려온 자가 수 천이었다. 광흥의 장군의 진주 싸움에 합류하여 누차 큰 공을 세웠다. 도원수 권을(權慄)이 전공을 조정에 올려 원종이등훈에 책록되었다.

백이신(白以信) : 수원인(水原人)이다. 임진란에 판관으로 의병장 최경회(崔慶會)에게 종군하여 누차 전공을 세우고 함양 곤양 사이에서 참획한 적의 수급이 매우 많으니 사람들이 그를 수호신처럼 의지하였으나 마침내 군중에서 전사하였다. 원종이등훈에 책록되었다. 그의 아들 민일(民逸) 역시 거병하여 옥천 초계의 싸움에서 특별한 공이 많았으나 마침내 군중에서 전사하였다. 조정에서 주부에 가자하였으며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 전적이 실려 있다.

김생(金生) : 김해인으로 김유신의 후손이다. 임진왜란에 수문장으로 공을 세워 원종이등훈에 책록되었다.

이명원(李明愿) : 성산인(星山人)으로 임진왜란에 숙부인 선교랑 희(僖)와 사직 간(侃)을 따라 의병으로 쫓기하여 공을 세워 봉사(奉事)가 되었다. 함안에서 고성(固城)으로 옮겨와 살았다.

박애상(朴愛祥) : 관포 어득강(魚得江)선생에게서 사기를 읽을 때마다 옛사람이 인(仁)과 의(義)에 죽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강개하고 탄식을 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임진란을 당하자 지현 조응도(趙凝道)와 협력하여 누차 큰 공을 세웠다. 이충무공이 공의 이름을 듣고 격문을 붙이고 모병과 군량의 일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의 궁핍한 일을 보지 못하여 스스로 처리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를 내렸다. 정유재란에 굴도(橋島)의 적을 참획하려다가 마침내 중과부적인 전투라 아쉽게 순절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하여 의관을 대신하여 장사를 지냈다. 뒤에 조응도와 함께 사당을 지어 모시고 제사를 올리고 있다.

구동(具棟) : 호는 모의당이며 응성(應星)의 아들이다. 재주가 출중하여 겨우 약관(弱冠)에 아버지와 숙부들을 따라 적을 토벌하였다. 의령 함안 등지를 왕래하여 전투에 참가하니 적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무너지면서 서로 경계하기를 “소년 장군은 당할 수 없다. 우리 군대는 씨가 남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광재우 장군께서 그의 공을 누차 조정

에 알렸다.

정준(丁俊) : 창원인이다. 선조 임오년(1582년)에 무과에 올라 임진란에 같은 고을 수사 최강장군을 따라 의병에 동참하여 무용을 떨치니 한 고장이 힘입어 평온하였다. 또 광홍의 장군을 따라 창원과 거제의 왜적을 쳐서 매년 큰 공적이 있었다. 진양성의 싸움에 적의 총탄 셋을 맞고 들것에 실려 돌아와서 집에서 운명하였다. 철종조에 병조참의에 증직되고 태상조에 병조참판에 가증(可贈)되었다.

김성원(金聲遠) : 김유신의 후손이다. 임진란을 당하여 칼을 잡고 의병을 일으켜서 고성과 창원, 칠원(漆原), 진주, 사천에서 적의 수급을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곧장 축석루의 진중으로 들어가서 크게 소리치기를 “의리를 부축하는 한 서생(書生)이 군병을 거느리고 여기에 왔다.” 고 하니, 김천일, 최경희, 황진, 김시민장군 등이 모두 장군을 재목으로 인정하였다. 이윽고 성이 함락되던 날 여러 장수들과 함께 물로 달려가서 죽었다. 전쟁이 끝나고 조정에서 거듭하여 추증하는 은전이 있었다.

이서종(李瑞宗) : 답년(聘年)의 아들로 재주가 문무를 겸하였다. 1728년 무신란에 아버지의 명으로 칼을 잡고 의병을 모집하여 곧바로 청주로 향하였으나 적이 토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왔다.

황치흥(黃致興) : 창원인이다. 무신의 변란에 거의하여 적을 섬멸하여 2등훈에 책록되었다. 또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고, 상을 당해서는 여묘살이 3년을 하였다.

김필만(金弼萬) : 문민공 탁영(濯纓)의 7세손이며 충경(忠慶)의 증손이다. 본래 기량이 있었는데 무신(1728)의 변란에 종제 필락(弼樂), 조카 여삼(汝三)과 함께 창의문(倡義文)을 지어 본진의 영장(營將) 이석복(李碩福), 곧양현감 우하형(禹夏亨), 하동부사 박도상(朴道常), 남해현령 윤하(尹灑) 등과 더불어 곧바로 남강을 건너 백마산(白馬山)에 올라 단을 쌓고 고유문을 지어 하늘에 빌고 자객인 성구(成九) 부자를 차단하고 거창으로 달려 들어가서 적진의 막사를 습격하여 난타하고 괴수인 웅보(熊輔), 숭곤(崇坤), 희량(希亮) 등을 차단하였다. 그러는 사이 몸에 적창에 찔려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니 그날이 4월 4일이다. 양무원종훈(揚武原從勳)에 책록되었다. 봉치(鳳峙)에 정려가 세워졌다.

전준창(全準昌) : 경산인으로 가선에 오른 기원(起源)의 아들이다. 무신년 변란에 병사를 재촉하여 행군을 하였으며 칼을 잡고 종군하여 소사(素沙)의 전투에서 총탄을 맞아 들것에 실려 돌아와서 전사하였다. 양무(揚武) 일등훈에 책록되고 순조조에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전성징(全聖徵) : 전준창(全準昌)의 아들이다. 무신년 변란에 아버지를 따라 역시 전공이 있어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증직되었다.

전덕징(全德徵) : 가선에 오른 준필(準弼)의 아들이다. 무신년 변란에 세운 전공으로 동중추에 올랐다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진사 노덕규(盧德奎)가 행장을 지었다. 현종 정미년에 세 숙질(준창, 성징, 덕징)의 사당을 세웠다.

최예숙(崔禮淑) : 효자 세창(世昌)의 증손이다. 영조조에 군자시 참봉으로 무신년 변을 당하여 세 아들 차일(次日), 준명(俊明), 준업(俊業)과 곤양군수 우하형(禹夏亨)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싸움터에 나간 공으로 공조좌랑에 증직되었다.

장덕추(張德樞) : 인동인(仁同人)이다. 가산(嘉山)의 난(1811년 홍경래의 난을 말함)에 의병을 모집하여 전쟁에 참여한 공이 있어 용천부사(龍川府使)를 지내고 죽었다. 사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최정원(崔正元) : 한승(翰升)의 아들이다. 본디 총명하고 기개가 영결스러웠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 죽었다. 의병을 일으켜 쫓기하려는 시에 이르기를 “초옥 으스스한 밤 길기만 한데 창가를 두드리는 빛소리에 잠못 이루네. 차라리 삼학사를 따라 심양의 귀신이 될지라도 되놈들과 같은 세상 살지 않으리.” 하는 충정을 밝혔다.

충노(忠奴) : 남손(南孫) 구만면에 살았던 최훈(崔塤)의 노복이다. 늙은 주인이 모두 왜적에게 죽고 외아들 정호(廷虎)만이 남았는데 세상이 바뀌어도 주인에 대한 충실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힘을 다하여 그 자손을 보호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 10세가 되어 글을 배우고자 하니 옷을 팔아 책을 사서 글을 익히게 하였다.

충비(忠婢) : 남춘(南春) 구만면 남손의 누이이다. 임진란에 6세 된 주인의 아들 정호를

업고 월계산(月桂山) 속으로 피해 숨어있는데 왜적이 찾아와서 해치려 하니 남춘이 몸으로 정호를 감싸고 애걸하기를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우리 도련님은 해치지 마오.” 하고 칼을 맞고 죽으니 왜적이 의롭게 여겨 그 아이는 살려주었다. 정호가 피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풀숲 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당숙 최강(崔綱)장군이 의병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다가 마침 그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끌어안아 말 위에 태워서 돌아왔다.

제 3절 근현대 인물

1) 독립운동가

강영순(姜永淳 1882-1939) : 호는 남계(南溪)이며 본관은 진주.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18일 진주군 정촌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 붙잡혔으나 탈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구기언(具奇彦 1884-1958) : 본관은 창원이며 독립운동가로 독립군자금 모금 활동 중 1925년 2월 일경에 체포되어 1926년 징역 6월 옥고 치름. 1992년 건국포장 추서되었다.

김갑록(金甲錄 1899-1977) : 회화면 배둔리 출신. 3월20일 고성구만·배둔장터 만세운동 주모자로 징역 6월 복역. 1993년 대통령 포장이 추서되었다.

김봉일(金奉日 1905-1983) : 본관은 김해이며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중 1926년 항일학생 결사 건아단(建兒團)을 조직하여 농촌지역에 독립사상을 고취.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김영조(金永祚 1899-1976) : 고성읍 성내리 출신 독립운동가로 1919년 3월 18일 진주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름. 1992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김영주(金英柱 1921-2000) : 본관은 김해이며 독립운동가. 1942년 동경에서 민족 차별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꾀하고자 하는 모의가 누설되어 옥고를 치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995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김진만(金鎭萬 1899-1943) : 고성읍 동외동 출신 독립운동가. 1919년 4월 1일 고성읍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복역함. 이후 사할린 강제노역으로 사망.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김형정(金炯正 1897-1952) : 애국지사. 1919년 3월 22일 고성읍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주모자로 재판을 받고 징역4개월 복역. 200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문기식(文琪植 1898-1970) : 본관은 남평이다. 애국지사. 1919년 3월 20일 구만면·회화면 일대에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 징역6월.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문상범(文相範 1880-1949) : 1919년 4월 1일 고성장터에서 만세운동으로 일본헌병에게 저항하다 체포되어 징역6월.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박윤수(朴允守 1921년생) :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출신 독립운동가. 일본유학파들이 결성한 ‘제일조선독립학생단’ 의 국내 조직책으로 가담. 고문으로 옥사.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박중몽(朴曾蒙 1916-1981) : 상리면 무선리 출신 독립운동가. 1931년 2월 경남진주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식민체제 비판 및 서적 보급 활동으로 50일 징역.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름. 200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배만두(裴萬斗 1896-1979) : 고성읍출신 독립운동가. 철성의숙 박거수의 제의로 1919년3월 17일 고성장터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다 사전 발각되어 체포. 이후 만주 신흥 무관학교 입학. 이범석 장군을 따라 시베리아로 가서 무장독립운동 수행. 군자금 모금 및 독립군 활동 전개하였다.

배상호(裴相鎬 1923-1957) : 마암면 장전 출신 독립운동가. 일제하에서 징집기피 방법을 전파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8월 옥고를 치름. 2002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백초월(白初月 1878-1944) : 호를 구국당(龜國堂)이라 하고 속명은 인영(寅榮)이며 본관은 수원이다. 승려 독립운동가. 독립 운동 중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옥중 순국하였다. 영오면

고향에 공덕비가 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서응엽(徐應燁 1894-1948) : 회화면 배둔리 출신 독립운동가. 1919년 3월 20일 배둔리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태형 90도를 받음.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심재인(沈載仁 1918-1950) : 고성읍 성내리 출신의 본관이 청송인 애국지사. 1940년 비밀결사 재일학생단을 조직. 1942년 경북 예천에서 활동 중이던 동지 이상만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인해 조직전원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4년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함. 1990년 대한민국 애국장(제91호)이 추서되었다.

안정삼(安正三 1919-1982) : 호는 벽파(碧波). 독립운동가. 일본 구택대학 전문부 재학 중 보안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1년 옥고를 치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안지호(安知鎬 1857-1921) : 호는 우봉(藕峯). 독립운동가로 1905년 을사늑약이 성립되자 통감부와 일본정부에 책문을 보냈다가 몇 차례 구금됨. 1919년 3월 19일 함안읍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됨.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어상선(魚上善 1889-1967) : 마암면 삼락출신 애국지사.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 제공. 대한계흥단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10월 옥고를 치름. 2005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여병섭(呂柄燮 1890-1934) : 고성읍 성내리 출신 애국지사. 평양신학교 재학 중 조선국민회 활동이 발각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름. 신간회 마산지회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함.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우태선(禹泰先 1889-1939) : 개천면 북평리 출신 애국지사. 1919년 3월20일 구만. 배둔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다가 90도 태형 받음.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윤영백(尹永白 1884-1958) : 하일면 용암 출신 독립운동가. 경술국치 후 서간도 환인현으로 피신하였다.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에 진력. 군자금을 모금활동으로 2년 옥고

치름.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금복(李今福 1912년생) : 하일면 오방리 애국지사. 일제 하 삼천포를 중심으로 노동·농민 운동을 하다가 징역8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2008년 대통령표창 추서되었다.

이기윤(李基潤 1913-2003) : (증삼이라고도 함)호는 화성(化晟). 본관은 함안으로 고성읍 덕선리 출신이다. 진주고등학교 재학중 일제에 항거하다가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옥고를 치름. 1993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백용(李白容 1911년생) : 본관은 수원이며 고성읍 출신 애국지사. 일본 산구현에서 민족 의식 고취와 독립의 당위성 역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됨. 199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이상만(李相晩 1919-1944) : 고성읍 우산리 출신 애국지사. 경북예천농산물검사소 서기로 근무하며 수시로 독립운동 단체와 연락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비밀 활동을 전개다가 발각되어 옥중에서 순국.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상만(李相萬 1924-1950) : 고성읍 덕선리 출신. 일본 경응의숙 재학 중 1940년 2월 결성된 동맹회 가담하여 조선독립투쟁을 위한 활동으로 체포돼 기소유예 됨. 2008년 대통령표창 추서 됨.

이상모(李相摸 1908-1961) : 본관은 함안이며 대가면 송계 출신 항일운동가. 1931년 고성 농민조합 간부로서 일제의 악세 거부 운동 등으로 징역6월 옥고 치름.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이상호(李相浩 1921-1983) : 본관은 함안이며 거류면 은월리 출신 애국지사. 1940년 동경 상야(上野) 공원에서 모임을 갖고 경상도 책임자로 국내로 들어와 고성군 농회 기수(技手)로 재직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언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재관(李在官 1920-1986) : 호를 소몽(蘇夢)이라 하고 본관은 함안이며 거류면 은월리 출

신 애국지사. 1940년 동경 상야(上野) 공원에 모여 조국독립에 대해 의논하고, 지속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 발각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언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정수(李正洙 1899-1964) : 구만면 와룡리 출신 애국지사. 배둔시장에서 일어난 3월20일만세시위 운동에 참여하다가 투옥되어 징역 6월 복역.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이진하(李鎭河 1912-1957) : 본관은 함안이며 대가면 송계리 출신 애국지사. 진주 공립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 1930년1월17일 광주학생운동 동조 동맹휴학 주도. 야학설립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등으로 옥고를 치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이호용(李好用 1893-1951) : 고성출신 독립운동가. 1919년 3월20일 산청 신등면 단계리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옥고.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장패관(張貝寬 1869-1908) : 고성출신 애국지사. 1907년 5-6월경 전북일대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의병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전투 도중 총상을 당하여 순국.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정덕수(丁德秀 1922-2012) : 본관은 나주이며 개천면 좌연리 출신 독립운동가. 조선독립청년단 조직. 1942년 일본 대관에서 거사를 모의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옥고를 치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음.

정갑권(丁甲權 1891~1968) : 거류면 송산리 출신 독립운동가. 고성읍 장터의 4월1일독립만세 시위에 참여. 태형90도 받음. 2008년 대통령 포장이 추서되었다.

정두명(鄭斗明 1909-1937) : 호는 두명(杜鳴)이며 본관은 진양이다. 마암면 보전리 출신 독립운동가. 김해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항일운동 시작. 1933년 10월 4일 경남교육노동조합에 가담하여 민족 교육 실시로 파직. 징역2년 6월 언도. 1990년 건국운동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정세권(鄭世權 1894년생) : 하이면 덕명리 출신 애국지사. 일제 하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

産獎勵會)·신간회(新幹會) 등 단체에 적극 참여. 1935년 서울 화동(花洞)의 2층 건물을 회사하여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천재환(千載桓 1900-1964) : 본관은 영양이며 고성읍 서외리 출신 애국지사. 3.1독립운동 참여. 만주 신흥무관학교의 보병속성과 수료하여 러시아군에 복무하기도 함. 대한독립단에 입단하여 대구지방에서 독립군으로 활약 중 체포되어 2년 옥고를 치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최낙중(崔洛鍾 1864-1945) : 본관은 전주이며 구만면 화림리 출신 애국지사. 3월20일 구만의 국천모래사장에서 봉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킴. 1920년 동경에서 동포들을 규합하여 동흥(東興)노동동맹을 창립. 친일단체에 대항 투쟁. 월간잡지 「노동(勞動)」을 발행·배포하여 항일 독립 운동 전개로 징역 1년6개월 언도. 병보석으로 출옥했으나 해방 전 타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우순(崔宇淳 1832-1911) : 호는 서비(西廨)며 근대 고성의 훌륭한 선비로 추앙받고 있다. 본관은 전주이며 하일면 학림 출신의 애국지사. 한일합방 이후 두문불출하며 서당에서 주민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우국의 정한을 달래고 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을 회유하여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은사금을 뿌렸다. 그러나 선생은 은사금 수령을 거절하고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며 음독 순절하였다. 지금도 학동마을에 선생이 순국한 사랑채가 남아있고 마을 입구에는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서비정이 세워져 있어 충효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정원(崔正元 1892-1922) : 본관은 전주이며 구만면 화림리 출신의 애국지사. 3월20일 구만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한인관리 퇴직권고문 발송하였으며 자금 모금을 위해 산청에서 활동을 하다가 수감되어 징역3년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 순국.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정주(崔正周) : 본관은 전주며 구만면 화림리 출신의 독립투사. 3월20일 구만·배둔의 독립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했다.

허재기(許在基 1887-1968) : 호는 좌해(左海). 본관은 김해이고 구만 저연리 출신의 독립운동가. 3월20일 구만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공약3장을 선창하는 등 독립만세의거 주동.

상해임시정부와 접촉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 밀고에 의해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옥고. 1990년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황수룡(黃洙龍 1907-1954) : 마암면 삼락 출신이다. 1924년 마산에서 부두노동자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항일운동. 징역1년6개월 옥고를 치름. 2005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황태익(黃泰益 1877-1953) : 호는 놀암(訥巖). 창원군 일암리 태생이나 고성에서 활동한 애국지사. 1924년 경남결사대 조직 활동 중 밀고로 수감되어 옥고 치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장관

김학렬(金鶴烈 1923-1972): 고성읍 수남리 출신. 1950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이래 미국 미주리대학, 애크런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였으며 재무부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경제·법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

김성진(金成珍 1949년생) : 고성읍 교사리 출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중소기업청장, 제14대 해수부장관 역임.

김영균(金永均 1929년생) : 고성 영현면 추계리 출신. 육사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군법무감 육군준장 예편. 12대 법제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홍익법무법인 대표 역임.

이규호(李圭鎬 1933년생) : 마암면 신리출신 경상남도지사, 건설부장관 역임.

이원홍(李元洪) : 고성읍 송학리 출신. KBS 사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문공부장관 역임.

이근식(李根植 1946년생) : 대가면 암전리 출신. 청와대민정 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역임.

이희성(李熺性 1924년생) : 고성군 상리면출신. 육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역임

제정부(諸廷富 1956년생) : 고성군 삼산면 출신, 행정고시 합격, 법제처장.

조정제(趙正濟 1939년생) : 거류면 용산리 출신. 해수부장관. 서울시립대학교 석좌교수 역임.

최낙정(崔洛正) : 고성출신, 부산해운청장, 해양수산부차관, 11대 해양수산부차관 역임

허문도(許文道 1940~2015) : 마암면 도전리 출신. 조선일보동경특파원, 청와대정무비서관, 통일부장관 역임.

3) 국회의원

이구수(李龜洙 1912년생) : 대가면 암전리 출신. 초대 제헌국회의원 역임.

김정실(金正實 1929년생) : 고성읍 덕선리 출신. 제2대 국회의원, 고성간척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비가 간사지에 남아있다.

정헌주(鄭憲柱 1915~1999) : 고성군 영오면 출신. 1960년 국무원 사무처장, 교통부장관역임. 제2대국회의원당선 후 4,5,8,9대 국회의원 5선 역임.

최갑환(崔甲煥 1910~1960) : 하일면 학림리 출신. 1929년 삼천포농민조합을 결성하여 동양척식회사의 무자비한 수탈에 항거. 광복 후 경상남도 초대 보안과장으로 치안 유지. 경상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제3대 국회의원(무소속 고성) 역임.

최석림(崔奭林 1922~1974) : 마암면 화산리 출신. 제4~7대, 4선국회의원 역임.

김기용(金基鎔 1906~1987) : 하일면 춘암출신. 공영인쇄주식회사사장. 제5대 국회의원(무소속) 역임.

최재구(崔載九 1929~1998) : 하일면 학림 출신. 한국산업은행 이사장. 제 8·9·10·12대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부총재 역임.

정순덕(鄭順德 1935년생) : 하이면 덕명리 출신. 육군준장전역.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제11~14대 4선국회의원, 민정당과 민자당사무총장 역임.

이효익(李孝益 1921년생) : 삼익피아노 사장, 11대국회의원 역임.

김정호(金正浩 1931~2013) : 고성읍출신. 13대 해병대사령관, 대한중석광업대표, 제11대국회의원(전국구)역임.

이영욱(李永旭 1932년생) : 마암면 두호리출신. 법무부차관,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역임.

최이호(崔二鎬 1934년생) : 개천면 청광리 출신.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전국구) 역임.

김형오(金炯旸 1947년생) : 고성읍 수남리 출신. 동아일보 기자, 제14~18대 5선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장 역임.

제정구(諸廷垢 1944~1999) : 대가면 적정리 출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대 판자촌에서 빈민의 권익운동에 헌신. 제14~15대 국회의원 역임. 저서로 '신부와 벽돌공' 등 있음.

허태열(許泰烈 1945년생) : 마암면 장산리 출신. 16~18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역임.

조경태(1968년생) : 고성 거류면 출신. 야당국회의원으로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 제17,18,19 당선. 민주당최고위원 역임. 새누리당 20대 국회위원. 기재위원장.

이범래(李泛來 1959년생) : 하일면 오방리출신, 법무법인 중앙 대표변호사, 제18대 구로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임.

허원제(許元齊 1951년생) : 마암면 장산리 출신. SBS이사(비서실실장). 제18대 국회의원(부산진갑)역임.

허범도(1950년생) : 고성출신. 중소기업청장. 18대 양산국회의원 역임.

김경수(金慶洙 1967년생) : 고성읍 서외리출신, 노무현재단 본부장. 제20대 김해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4) 고위 공직자

곽만섭(郭滿燮 1938년생) : 본관은 현풍. 구만면 효락리 출신. 제 5·7대 창원시장, 울산시장, 부산광역시 부시장, 산림청장 역임.

김원석(金原奭 1940년생) : 고성읍 성내리 출신. 대통령 행정비서관, 제25대 경상남도지사 역임.

김정석(1962년생) : 동해면 내곡 출신. 사법연수원29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임.

박근(朴權) : 고성읍 무량리 출신. 주UN대사 역임.

박순철(朴順哲 1932~1992) : 회화면 배둔리 출신. 서울시 성북구청장. 서울시 재무국장·내무국장 역임.

박우식(朴雨植 1922~2001) : 삼산면 병산리 출신. 서울시 철도공사 사장 역임.

이상진(李相振 1933년생) : 대가면 암전리 출신. 외무고시 합격. 주일공사. 주터어키·알젠티나 대사,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 역임.

제일용(諸一鏞 1935년생) : 대가면 척정리 출신.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재무부 조세제도 심의위원. LG그룹 기획조정실장 역임.

최경림(崔京林 1958년생) : 상리면 무선리 출신. 주 브라질 대사, 주 UN대사 역임.

최성재(崔聖載 1946년생) : 하이면 사곡리 출신. 청와대고용복지수석 역임.

최두열(崔斗烈 1932~1995) : 사법고시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하였으며 치안국장과 노동청장

및 부산시장을 역임.

최연중(崔然宗 1937년생) 구만면 화림리 출신.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금융감독원장 역임.

최일홍(崔一鴻 1932생) : 구만면 화림리 출신. 체육부 차관, 경남도지사 역임.

5) 법관

권영목(權寧沐 1930~1981) : 거류면 은월리 출신. 고등고시 사법 행정 양과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김영세(金英世 1915~1979) : 고성읍 성내리출신. 일본 보통고시 및 조선 변호사 고시 합격. 부산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대법관 역임.

이중찬(李鍾燦 1946년생) : 삼산면 장치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중수부장, 청와대민정수석 역임.

최선호(崔瑄鎬 1929~2009) : 고성읍 송학리 출신. 고등고시 행정 사법 양과 합격.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최신석(崔信錫 1940년생) : 하일면 학림리 출신. 대검찰청 중수부장.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역임.

황선태(黃善泰 1948년생) : 동해면 양촌 출신. 대전지검검사장, 법무부 검찰부장,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역임.

황종국(黃宗國1952년생) : 거류면 감서리 출신.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임.

6) 학자 및 교육자

권정호(權正浩 1942년생) : 하일면 오방리 출신. 진주교육대학 총장, 경상남도 교육감 역임.

김병규(金秉圭 1920~2000) : 구만면 연동 출신. 동아대학교대학원장 역임.

김성준(金 成俊): 거류면 은월리출신. 진주교대총장역임.

김열규(金열규 1932~2013) : 한국학의 거장. 서강대학교교수, 하버드대학 객원교수, 인제대학교 교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역임.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등 120여 권 저술. 하일면 송천리에 귀향하여 향암 치료 중에도 저술 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22일 서거.

김용태(金容太 1921년생) : 거류면 신용리 출신. 조선어학회조직. ‘대구사범 문예부’ 사건으로 옥고를 치름. 국립진주교육대학장 역임. 고성군민의 노래 작사. 논고로 ‘고성오강대 발생고’ 등 다수가 있음.

김재익(金載翼 1892~1966) : 고성읍 동외리 출신. 1963년 철성중학교·철성고등학교 설립. 재성학원 이사장 역임.

김호근(金浩根 1929년생) : 영오면 영대리 출신. 미국버튼대학교 교수, 남서울대학교총장, 삼척대학교 총장 역임.

도우현(都禹紘 1928년생) : 회화면 삼덕리 출신. 동아대 법정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역임.

박용숙(朴容淑 1930~2007) : 개천면 청광리 출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부산대학교 박물관장 역임.

박용헌(朴容憲 1932년생) : 개천면 나선리 출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역임. 저서로 ‘학교사회’ 등 다수.

박재근(朴載斤 1938년생) : 하이면 석지리 출신 승려. 법호는 경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위원 역임.

배기완(裴基完 ?~2008) : 마암면 화산리 출신. 단국대학교 상경대학장 역임.

빈봉식(賓鳳植 1939년생) : 삼산면 두포리 출신. 동의대학교 상경대학장 역임.

서석용(徐碩龍 1939년생) : 회화면 당항리 출신, 경성대학교 문과대학장 역임.

서호직(徐浩直 1889~1970) : 영현면 연화리 출신. 일제 치하인 1930년대부터 도덕규범 실천운동, 마을 공동 경제 사업, 영현중학교 설립에 기여함.

심봉근(沈奉謹 1943년생) : 하일면 송천리 출신.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동아대학교총장 역임.

오식완(吳寔浣 1938년생) : 고성읍 서외리 출신. 마산대학 총장 재임.

이상경(李相旻 1956년 5월 13일생) : 고성읍 덕선리 출신.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동경대학교 객원교수 및 미국 UTAH 대학교 화학과 파견교수, 2016년 제 10대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 재임.

이천수(李千洙 1943년생) : 고성읍 이당리 출신. 순천향대학교 총장, 대진대총장, 교육부 차관, 영남대학교 이사장 역임.

정만식(鄭萬植 1938~2006) : 고성읍 송학리 출신.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제승호(諸成鎬 1958년생) : 고성출신. 중앙대법과대학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공동대표 역임.

제원호(諸元鎬 1960년생) : 대가면 척정리 출신.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학술상 수상. 젓어도 물방울 안 생기는 ‘초친수성’ 과학적 원리 규명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나노인.

최정락(崔廷洛 1932년생) : 하일면 학림리 출신. 부산정보대학 학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재단이사 역임.

하기호(河琪鎬 1934년생) : 고성읍 출신, 고성향토사학자로 향토역사연구지대함. 전)고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역임.

7) 언론인

박진열(1953년생) : 경남 고성출신. LA특파원 한국일보 편집국장 한국일보 사장 대표이사 역임.

서시주(徐時柱 1940년생) : 회화면 당항리출신. 연합통신상무이사, 바른방송대표이사 사장 역임.

심의표(沈宜杓 1948년생) : 고성읍 성내리 출신. KBS(전)부산총국장, 전)재경고성향우회회장 역임. 뉴스통신진흥회이사(현).

이만수(1954년생) : 하이면 사곡리 출신. KNN방송 사장 역임.

이상우(李相佑 1921~1955) : 마암면 신리 출신. 부산일보사 편집국장, 농업진흥공사 이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 역임.

이상갑(李相甲 1942년생) : 마암면 석마리 출신. KBS보도본부장, KBS해설위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언론학박사.

이상희(李相禧 1929~2010) : 고성읍 덕선리 출신.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신문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역임.

이청수(李清洙 1940년생) : 고성읍 무량리 출신. KBS보도국장, 해설위원장, KBS 워싱턴 총국장,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이상철(李相哲 1949년생) : 거류면 은월리 출신. 조선일보 편집국장, 월간조선 사장 역임.

정기정(鄭基政 1940년생) : 하이면 덕명리 출신. 마산문화방송사장. 진주문화방송사장 역임.

정추희(1936년생) : 고성읍 수남리 출신. 부산일보 편집국장 상무이사 역임. 2009년도 고

성군민상 수상(문화부문)

제재형(諸宰馨 1935년생) : 대가면 척정리 출신. 한국일보 정치부장, 국민일보 논설위원, 대한언론인회 회장 역임. 고성군민상 수상.

최연태(崔然邵 1926년생) : 영오면 오서리 출신. 한국경제일보 상무이사 역임.

최재호(崔載浩 1917~1988) : 하일면 학림리 출신. 호는 아천(我川). 진주삼현여자중고등학교 교장. 경남일보 주필 및 사장 역임. 시조집 ‘비취단장’, ‘아천시집’ 등이 있음.

8) 의사

문효중(文孝重 1924년생) : 삼산면 삼봉리 출신. 부산대학 병원장(비뇨기과전문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 역임.

이수용(李水用 1950년생) : 서울의대 정형외과.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원자력병원장(제8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역임.

9) 군장성

이희성(李熿性) : 상리면 무선리 출신. 육사8기. 예)대장. 육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역임.

허평환(許平桓) : 하일면 학림리 출신. 육사30기. 예)중장. 사단장, 국군기무사령관 역임.

최용림(崔容林) : 구만면 화림리 출신. 육사34기. 예)중장. 사단장, 특전사령관역임.

최석립(崔石立) : 마암면 장산리 출신. 육사19기. 예)소장. 육군헌병감, 대통령 경호실장 역임.

김중화(金鍾華) : 회화면 출신. 갑종출신. 예)소장. 포병학교장, 사단장역임.

이흥렬 : 거류면 송산리 출신. 육사26기. 예)소장. 육군군수학교장, 사단장 역임.

천연우 : 고성읍 출신, 육사 29기. 예)소장. 사단장, 육군보병학교장 역임.

김효수(金孝洙) : 영오면 연당리 출신. 경북대 ROTC 36기. 예)육군소장. 육군57사단장·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참모부장·학생중앙군사학교장 역임.

김용수(金龍洙) : 마암면 도전리 출신. ROTC. 예)준장. 육군부관감 역임.

이향수 : 고성읍 출신. 육사21기. 예)준장. 육본처장, 사단장 역임.

김영배 : 의무사관. 예)준장. 국군통합병원장 역임.

박상만 : 고성읍 출신. 법무사관. 예)준장. 육군법무감 역임.

허연욱 : 동해면 출신. 육사29기. 예)준장. 육본처장, 국군체육부대장 역임.

정종수 : 예)육군준장. 사단장역임.

박재일 : 고성읍출신. 육사 41기. 예)준장. 기갑여단장, 육본처장 역임.

김정호 : 고성읍 출신. 예)해군 중장. 해병대사령관, 국회의원 역임.

이상료 : 대가면 양화리출신. 의무사관. 예)해군준장. 대통령주치의, 국군통합병원장 역임.

이성률 : 고성읍 기월리 출신. 예)공군소장. 공군본부 기무부대장, 기무사참모장역임.

김병오 : 회화면출신. 공사23기. 예)준장. 전투비행단장역임.

10) 기업가

김상태(金尙泰) : 고성읍 울대리 출신. 삼풍운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박용희(朴容熙 1933년생) : 한국증권거래소 조사부 차장, 부국증권(주) 대표이사

박용보(朴容甫 1912~2004) : 개천면 나선리 출신. (주)유성모직 회장, 수출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백효흠 : 영현면 신분리 출신. 현대자동차 중국법인대표이사 역임.

서재열: 영오면 오서리 출신. (주)한립회장, 시흥상공회의소회장역임.

양계동(梁桂東 1918~1959) : 건국 후 초대 중앙청 약정국장. 신아제약주식회사 창업.

이정옥 : 대가면 암전리출신. 제일사진인쇄대표. 고성군민상수상. 고성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

이홍근(李洪根 1944년생) : 동해면 내산리 출신. 연합유리대표. 고성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

전경두(田晷斗 1935년생) : 고성읍 동외리 출신.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

조효식(曹孝植) 하일면 송천리 출신. 고려화공주식회사회장. 힐튼호텔 사장.

최민석(崔民錫) : 하일면 학림리 출신. 유원산업주식회사 사장.

최칠관(崔七官 1939년생) : (주)산양설립 회장 역임. 고성노벨cc대표이사.

최상림(崔象林 1930~2010) : 마암면 화산리 출신. (주)풍농비료 대표이사.

최위승(崔渭昇 1933년생) : 대가면 암전리 출신. 전)무학그룹 회장, 마산상공회의소 회장역임.

최재호 : 최위승의 자. 현 무학그룹 회장

최현열(1934년생) : 롯데그룹 고문 역임

허권중(許權中 1938년생) : 대덕기업 사장. (주)남부서비스 대표이사.

최상웅(崔相雄 1950년생) : 고성읍 덕선리 출신. KCC 건설대표 역임.

허유(許洵1936년생) : 마암면 장산리출신. 시인으로 한국투자금융사장 역임. 시집 <우리 김형에게> 외 다수

허한도(許翰道) : 대가면 유흥리 출신. 동남은행장 역임.

허태학(許泰學 1944년생) : 대가면 갈천리 출신. 호텔신라 대표이사, 삼성석유화학대표이사 사장 역임.

11) 문화 · 체육 · 예술인

김추련(1946~2011): 회화면 당항리 출신 영화배우. 1974년 ‘빵간에 산다’ 로 데뷔. 제10회 백상예술대상 수상.

김초롱(크리스티나 김) 거류면 당동 출신. LPGA 골프선수.

박목월(1915~1978): 시인·수필가. 경남 고성 출신(자작시 해설집 「보랏빛 소묘」 『1958, 신흥출판사』의 후기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경남 고성” 으로 밝힘). 1939년 「문장」 지에 정지용 추천으로 등단. 한양대문리대학장 역임. 주요 시집으로는 「청록집」 「산도화」 「난 기타」 「청담」 「경상도의 가랑잎」 「박목월 자선집」 등이 있다.

서벌(徐伐 1939~2005): 본명은 봉섭. 시조문학지 추천으로 등단. '하늘색 일요일' '각목집' '휘파람새나무에 휘파람으로 부는 바람' 등 시집이 있다.

김춘량(1934~2013): 본명은 태근. 시조문학지 추천으로 등단. '우리네 예사사랑' '서울 낮달' '작은 행복론' 등 시집이 있다.

엄홍길(1960년 9월 14일생):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성공 산악인.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오인환(1965년생) :고성출신 현대미술가.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상 선정.

정재근(1969년생) :회화면 배둔리 출신. 국가대표 및 프로농구선수 SBS 농구감독 역임.

정정숙(1982년생) : 고성출신. 여자축구국가대표 미드필드. 2006년 AFC여자아시안컵 득점왕.

조혜련(1970년생) : 연예인, 방송인, 개그우먼.

추송웅(秋松雄 1941~1985): 고성읍 서외리출신 연극배우. 주연한 모노드라마 <빨간피터의 고백>은 한 해 동안 163회 공연과 8만 5천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 동아연극상 남우주연상 수상.

천병희(千丙熙 1939년생) : 동해면 장좌리출신. 한국을 대표하는 독어독문학자이자 로마·그리스어 고전 번역가. 단국대학교 교수 역임. 대표적인 번역서로 「변신」 「로마의 축제일」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등 다수가 있다.

최현경(1961년생): 마암면 신리 출신. 인기드라마 작가. 「백만송이 장미」 「유리의성」 「이웃집 웬수」 「오늘만 같아라」 「사랑해서 남주나」 「파랑새의 집」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한갑진(韓甲振 1928년생) : 고성읍 덕선리 출신. 1966년 <한진홍업> 영화사 설립. 한진홍업은 멜로, 액션, 코미디, 공포, 아동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90여 편을 제작. 또 <록키> 와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스팅> 등 2백 편에 가까운 영화를 수입하는 등 1970년대 전성기를 이룬 대표적인 영화사로 꼽힌다.